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A Study on Status Assessment and Improvement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in Fishing Communities

2020. 06.

이호림 | 박상우 | 황재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진

이호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연구원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황재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합정책연구본부 전문연구원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이호림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3절, 제3장 제2절, 제4장, 제5장

연구진

박상우 제2장 제1절, 제2절
황재희 제3장 제1절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김인겸 (주)인큐브랜드 대표
김봉태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이웅기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본부 본부장
김정협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
장묘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장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목차

❖ 요약 · i

제 1 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1. 연구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2
제2절 연구 목적	3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4
2. 연구 방법	6

제 2 장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실태 · 11

제1절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실태	11
1. 법적근거 마련	11
2. 어촌 6차산업화 추진체계	18
제2절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21
1. 1차 공모사업 현황(2015~2016년)	23
2. 2차 공모사업 현황(2016~2018년)	36
3.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관리	46
제3절 시범사업 추진실태 및 한계	54

제 3 장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운영실적 · 57

제1절 어촌 6차산업화 운영실적	57
1. 실적 개요	57
2. 마을별 운영 현황 및 실적	61
제2절 운영실적 점검	71
1. 어촌 6차산업화 마을별 운영 점검	71
2.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한계	73

제 4 장 어촌 6차산업화 개선방안 · 79

제1절 어촌 6차산업화 개선방향 도출	79
1. 리빙랩을 통한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	79
2. 지역자원의 발굴	80
3. 사업주체의 거버넌스	80
4. 지역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81
제2절 어촌 6차산업화 개선방안	82
1. 사전준비단계	83
2. 사업진행단계	89
3. 사후관리단계	94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99

제1절 결론	99
제2절 정책제언	100
1.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100
2. 어촌 6차산업화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간조직 역할강화	101
3. 어촌 6차산업화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102



표 목차

❖	
〈표 2-1〉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운영 현황	13
〈표 2-2〉 어촌 6차산업화 S/W 분야 지원내용	14
〈표 2-3〉 어촌 6차산업화 H/W 분야 지원내용	15
〈표 2-4〉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선정절차	17
〈표 2-5〉 어촌 6차산업화 성과분석	21
〈표 2-6〉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현황	22
〈표 2-7〉 해금강마을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안	26
〈표 2-8〉 대야도마을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안	30
〈표 2-9〉 송호·중리마을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안	32
〈표 2-10〉 안포마을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안	35
〈표 2-11〉 중왕마을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안	38
〈표 2-12〉 두어마을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안	40
〈표 2-13〉 신평마을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안	42
〈표 2-14〉 계도마을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안	44
〈표 2-15〉 전도마을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안	46
〈표 2-16〉 어촌개발지원단 사업내용	47
〈표 2-17〉 2차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의 실집행 현황(2019.10)	50
〈표 2-18〉 2018년 1차 시범사업 모니터링 내용	51
〈표 2-19〉 2018년 2차 시범사업 모니터링 내용	52
〈표 2-20〉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시범사업 모니터링 내용	53
〈표 2-21〉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의 추진실태 및 한계	56
〈표 3-1〉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매출액	59
〈표 3-2〉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순이익	60
〈표 3-3〉 어촌 6차산업화 시범마을 방문객 수	60
〈표 3-4〉 대야도마을 사업활동별 순이익 현황(일부)	62

〈표 3-5〉 안포마을 6차산업화 특화상품 시장진출 보도자료	64
〈표 3-6〉 안포마을 사업활동별 실적 현황	65
〈표 3-7〉 안포마을 연월별 매출 현황	66
〈표 3-8〉 해금강마을 6차산업화 사업비	67
〈표 3-9〉 계도마을 사업비 현황	69
〈표 3-10〉 전도마을 사업비 현황	71
〈표 3-11〉 어촌 6차산업화 운영실적 분석을 통한 시사점	72
〈표 4-1〉 어촌 6차산업화 사업과 기타 지원사업과의 연계	94
〈표 5-1〉 단계별 모니터링 주요내용(안)	103

그림 목차



〈그림 1-1〉 공간적 범위	4
〈그림 1-2〉 여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현장조사(경남 거제, 전남 여수)	7
〈그림 1-3〉 연구수행 체계도	8
〈그림 2-1〉 여촌 6차산업화 개념도	12
〈그림 2-2〉 여촌 6차산업화 추진경과	15
〈그림 2-3〉 여촌 6차산업화 1차 공모사업 추진과정(관계기관 협의회)	16
〈그림 2-4〉 여촌 6차산업화 1·2차 공모사업 선정지역	18
〈그림 2-5〉 여촌 6차산업화 추진체계	19
〈그림 2-6〉 해금강마을 현황	23
〈그림 2-7〉 해금강마을 6차산업화 사업내용	24
〈그림 2-8〉 해금강마을 6차산업화 핵심 상품	25
〈그림 2-9〉 대야도마을 현황	27
〈그림 2-10〉 대야도마을 6차산업화 사업내용	27
〈그림 2-11〉 대야도마을 6차산업화 추진과정	28
〈그림 2-12〉 대야도마을 6차산업화 핵심 상품	29
〈그림 2-13〉 송호·중리마을 현황	31
〈그림 2-14〉 송호·중리마을 6차산업화 사업내용	31
〈그림 2-15〉 송호·중리마을 6차산업화 핵심 상품	32
〈그림 2-16〉 안포마을 현황	33
〈그림 2-17〉 안포마을 6차산업화 사업내용	34
〈그림 2-18〉 안포마을 6차산업화 핵심 상품	35
〈그림 2-19〉 중왕마을 현황	36
〈그림 2-20〉 중왕마을 6차산업화 핵심 상품	37
〈그림 2-21〉 두어마을 현황	39
〈그림 2-22〉 두어마을 6차산업화 핵심 상품	39

〈그림 2-23〉 신평마을 현황	41
〈그림 2-24〉 신평마을 6차산업화 핵심 상품	41
〈그림 2-25〉 계도마을 현황	43
〈그림 2-26〉 계도마을 6차산업화 핵심 상품	43
〈그림 2-27〉 전도마을 현황	45
〈그림 2-28〉 전도마을 6차산업화 핵심 상품	45
〈그림 2-29〉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48
〈그림 3-1〉 대야도마을 체험 프로그램	61
〈그림 3-2〉 대야도마을 주요 숙박업체	62
〈그림 3-3〉 대야도마을의 우럭 가공상품 및 직판 현장	63
〈그림 3-4〉 안포마을 체험 프로그램 및 특산물 판매	63
〈그림 3-5〉 안포마을의 연월별 매출 추이	66
〈그림 3-6〉 해금강마을 시범사업 현황	67
〈그림 3-7〉 거제 계도마을 낚시 체험 현황	68
〈그림 3-8〉 전도마을 어촌 6차산업화 개요	69
〈그림 3-9〉 전도마을 6차산업화 특화상품	70
〈그림 3-10〉 어촌 6차산업화 한계 및 개선방향 도출	77
〈그림 4-1〉 단계별 지원정책 방안	82
〈그림 4-2〉 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리빙랩 방식의 거버넌스 구축	84
〈그림 4-3〉 사전준비단계의 연구개발 지원	88
〈그림 4-4〉 어촌 6차산업화 자가진단 프로세스(안)	93
〈그림 4-5〉 지역 내 어촌마을 간 협력시스템 구축사례(중왕마을)	95

요약

요약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위해 6차산업화 고도화를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재생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산어촌 조성’을 위해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 경제 모델 정립이라는 과제를 강조하였다.

어촌사회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통산업인 수산업이 급격히 침체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어촌사회는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어촌사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젊고 유능한 인력유입에 한계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진행 이후 사업추진실태, 사업에 대한 운영실적, 사업효과 등을 진단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의 개선방안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

시하였고, 어촌 6차산업화 확대추진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해 운영실적을 분석하였고, 현장조사 등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6차산업화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추진실태분석은 사업이 추진된 9개소 마을에 사업운영 실적과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니터링 실적을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의 추진실태는 사업준비단계, 사업진행단계, 사업완료단계로 구분하여 시범사업 진단에 따른 문제점과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어촌 6차산업화 실적분석은 1~2차 시범사업 대상마을 9개소 중 정량자료 확보가 가능한 5개 마을(해금강마을, 대야도마을, 안포마을, 계도마을, 전도마을)을 대상으로 하였고, 공통지표로는 매출액, 순이익, 방문객 수를 집계·비교하였으며, 마을별 실적지표는 매출·지출·순이익 등 연월별 실적을 활용하였다. 마을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마을의 사업확대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이번 현안연구를 통해 어촌 6차산업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하여 6차산업화 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6차산업화 개선방안을 ① 사전 준비단계, ② 사업진행단계, ③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준비단계는 리빙랩 방식의 마을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공동체 주도의 거버넌스 구축 및 수산업 기반 6차산업화 상품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사업진행단계는 사업주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과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지자체 간의 점검관리 항목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후관리단계는 중앙정부·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대상마을이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수산업 침체 등 어촌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 6차산업화 필요

■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의 정책적 활용 제고

- 국정과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산어촌 조성’을 위해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화 고도화 및 사회적 경제 모델 정립’에 부합하는 어촌 6차산업화를 통하여 어촌경제 활성화 추진
 - 2017년 5월 ‘6차산업화 고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목표를 세움
 - 정부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위해 6차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재생을 강조함
 -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6차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전통산업인 수산업의 침체 등으로 인해 어촌사회는 지속적으로 위축

- 어촌사회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수산업 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어촌사회는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가는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2019년 어업가구는 5만 가구 선이 붕괴되었고, 어가인구수도 10만 명 선을 위협하는 수준임
 - 어촌사회는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초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1인가구가 증가되고 있음
 - 어촌사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젊고 유능한 인력유입에 한계가 있음

■ 어촌 6차산업화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 6차산업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전통산업인 수산업의 침체와 어촌경제 위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을 실행하여 어촌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방안 마련
 - 2014년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5개소 조성 및 2016년 시범사업 5개소 조성하여 총 10개소의 시범사업 진행
 - 2018년 어촌 시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별로 10개소 시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 및 어촌경제 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진행 후 사업추진실태를 분석·진단하여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어촌 6차산업화 추진실태는 정량적·정성적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실적 및 사업효과를 도출하고, 사업진행과정에서 문제점과 한계점을 단계별로 도출함
 - 단계별 문제점과 한계점은 6차산업화 사업 확대 시 단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개선방안을 제시함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실태 및 한계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중 1차 공모사업은 완공 및 운영 중이며, 2차 공모사업은 미완료 상태
 - 1차 공모사업 4개소 모두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차 공모사업 2개소가 완공되었고, 나머지 3개소는 준공 예정이거나 추진 중에 있음

〈요약 표 1〉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현황

	구분	핵심자원	6차산업화 방안	비고
1차	해금강마을 (경남 거제)	• 동백열매 • 기름제품, 공예품	• (1차) 동백열매 채취 • (2차) 공예, 기념품 생산 • (3차) 전시판매, 체험프로그램	완공 (2016. 10)
	대야도마을 (충남 태안)	• 바지락, 우럭 • 반건조 우럭	• (1차) 우럭, 바지락 생산 • (2차) 우럭 가공시설 조성 • (3차) 레스토랑 및 판매장 운영	완공 (2016. 5. 24)
	송호중리마을 (전남 해남)	• 전복 • 전복빵	• (1차) 전복 생산 • (2차) 전복빵 제조시설 • (3차) 레스토랑 및 판매장 운영	완공 (2017. 1. 18)
	안포마을 (전남 여수)	• 새조개 및 피조개 • 피조개 분말 등	• (1차) 새조개, 피조개 생산 • (2차) 분말 가공시설 • (3차) 레스토랑 및 민박 운영	완공
2차	중왕마을 (충남 서산)	• 감태 • 조미감태	• (1차) 감태 생산 • (2차) 조미감태 가공시설 조성 • (3차) 유통판매, 체험프로그램	완공
	두어마을 (전북 고창)	• 복분자, 장어 • 진액 파우치 등	• (1차) 가무락, 장어 생산 • (2차) 진액 가공시설 조성 • (3차)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완공 (2019. 7. 30)
	신평마을 (전남 고흥)	• 미역 • 건조미역(소포장)	• (1차) 미역 생산 • (2차) 건미역 가공시설 조성 • (3차) 유통판매	준공 예정
	계도마을 (경남 거제)	• 대구 • 대구 필렛 등	• (1차) 대구 생산 • (2차) 대구 필렛 및 젓갈 가공 • (3차) 관광객 판매	준공 예정 (2019. 12)
	전도마을 (경남 남해)	• 멸치 • 멸치 액젓	• (1차) 죽방멸치 생산 • (2차) 멸치액젓 가공 • (3차) 체험프로그램 운영	추진 중 (토지형질변경)

자료: 어촌개발지원단, 2019d, p.1를 참고하여 저자가 재작성

■ 어촌개발을 위한 중간조직을 구성하여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관리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관리를 위해 어촌개발지원단을 구성하여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1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진행
 - 모니터링은 연도별 예산집행을 통해 실집행률을 체크하는 예산집행 모니터링과 사업내용의 조성여부 및 운영실적(매출액 및 방문객) 등 사업관리 모니터링을 수행함
 - 실집행률 모니터링과 사업관리 모니터링은 시도별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어촌개발지원단은 시도별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수행내용을 취합하여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함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실태 및 한계 발생

- 사전준비단계에서 사업주체는 특화상품 개발에 대한 인지부족, 사업내용의 구체성 부족, 사업시설의 인허가 등에 대한 한계 발생
 - 사전준비단계에서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어촌 6차산업화에 대한 사업 이해도 체크가 미비하였고, 특화상품 개발 등의 사전준비가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남
- 사업진행단계에서 사업주체는 특화상품 변경, 토지이용 변경, 사업리더의 변경 등 다양한 변수에 노출되었고, 사업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실행력 등의 준비가 부족했음
 - 사업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의 진행여부를 체크할 수 없으며, 사업과정에서 갈등 등이 발생하여 사업집행 지연
 - 사업진행단계에서 사업 전·후의 기초데이터 수집 등이 이루

- 어지지 않아 실태조사를 통한 성과측정이 어렵고, 특화상품 개발 등의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사업완료단계에서 사업주체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체계적인 사업 준비의 미비로 인해 사업운영에 한계가 나타남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운영실적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마을별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어촌 6차산업화 사업확대 방향 제시

〈요약 표 2〉 어촌 6차산업화 운영실적 분석 및 사업 확대 방향

어촌마을	운영실적 분석	사업 확대 방향
거제 해금강마을	• 사업의 다각화 및 보타니아 방문객 증가로 연평균매출 20.9% 증가	• 외도 방문객이 사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유람선사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업 확대
태안 대야도마을	• 갯벌체험마을 매출액 지속적 증가 • 투자사업비 회수에 6년 5개월(10억 원) • 체험객 지속증가 추세 • 음식점 운영보다 상품판매의 수익이 높음	• 가공제품의 다각화를 통한 판로 확대 필요 - 체험객, 펜션 등
여수 안포마을	• 원물 생산 판매로 높은 매출규모를 보임 • 원물 직거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지역 상생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
거제 계도마을	• 낚시객 수요 증가로 매출액 증가 • 낚시객 지속적 증가	• 낚시수요에 맞는 상품 개발 필요
남해 전도마을	• 가공공장 현대화 및 갯벌체험으로 매출액 증가 • 체험관광객 감소	• 상품개발 및 다각화를 통한 판로 확대 필요

자료: 저자 작성

어촌 6차산업화 개선방안 마련

- 어촌 6차산업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하여 어촌 6차산업화 사업 개선방향을 제시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9개소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은 어촌주민의 역량부족, 어촌 6차산업화 대표자원 발굴 미흡, 사업추진 전문성 확보 어려움, 사업추진과정 점검 등에서 한계가 나타남
 -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직접적으로 가공상품개발, 유통판매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시범마을 대부분은 자원의 부가가치보다 원물의 판매가격을 높여 판매하는 쉬운 방식의 6차산업화 방식을 선호하여 파급력이 크지 못함
 - 시범사업의 사업추진은 대상마을의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부족, 기초인프라 부족, 행정과 소통, 계획지연 등의 한계가 발생함
 - 사업추진과정 중 많은 변수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점검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 발생
 - 어촌 6차산업화의 개선방향은 리빙랩을 통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사업주체의 거버넌스 확립과 지역상생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사전준비는 지역전문가, 지역주민, 행정이 함께 어촌지역의 비전과 목표를 만들고, 어촌자원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리빙랩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 지역자원 발굴은 어촌마을의 부존자원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향후 지역 브랜드로 성장시킬 수 있는 자원에 집중적

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음

- 사업주체는 어촌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키우고, 6차산업화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강화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1차·2차·3차 산업 관련 종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교류, 학습, 정책수요, 유통·판로 등을 함께 해결하는 상생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함

■ 어촌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

- 사전준비단계는 리빙랩 방식의 마을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공동체 주도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수산업 기반 6차산업화 상품개발 유도
 - 사전준비단계의 역량강화는 자원에 대한 객관적 정보, 지역네트워크 구축, 마을주민의 단계적 교육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함
 - 지역전문가, 연구자, 마을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자원에 대한 발굴과 상품화, 생산품의 품질향상, 시제품 개발이 필요함
 - 지역시장의 타겟 및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개발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해야 함
- 사업진행단계는 사업주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중앙정부-지자체 간의 점검관리가 필요함
 - 어촌 6차산업화 기반구축은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원물확보 및 보관, 상품생산, 가공시설 규모, 판매시설 및 서비스 규모, 유통채널 등 사업화를 위한 기반이 필요함
 - 어촌 6차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인력양성, 제품의 품질관리·유지관리 시스템, 국내시장 판로 개척 등 6차산업화 전문화·시스템화가 필요함
 - 어촌 6차산업화 사업 자기진단 매뉴얼을 마련하여 추진시점

- 과 추진 이후의 사업점검, 추진전략의 이행, 조직구성 및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기존사업과 연계 필요
- 사후관리단계는 중앙정부·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대상마을이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마을-기업 간 협력시스템 구축, 지역인재 리더 양성, 1차·2차·3차 산업 간 점점시스템 및 성과관리 등의 지역네트워크 강화 필요
 - 어촌 6차산업화는 가공기술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상품 품질 향상, 수요자 맞춤 개발상품 다양화, 지역경제의 이익 환원 등의 지속성 담보 필요

어촌 6차산업화 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 어촌 6차산업화는 1차산업인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을 기반으로 어업인 및 지역주민(공동체) 간 ① 6차산업화(융·복합)사업과 관련된 사업 발굴, ② 발굴된 사업에 대한 제품(기술) 개발, ③ 제품의 사업화, ④ 판로 확대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체계화된 지원제도 마련 필요
 - 어촌 6차산업화 전진대회 등 정보교류 촉진을 통해 6차산업화 사업 발굴
 - 어촌공동체 및 마을공동체의 역량부족으로 인해 상품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6차산업화 상품개발을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 마련 필요
 - 상품개발 후 상품을 이용·구매할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상품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 필요

- 국내외 식품·산업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공공기관 등을 통해 우선 소비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인 판로 개척·확대를 지원

■ 어촌 6차산업화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간조직의 역할 강화

- 어촌 6차산업화를 성공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① 실질적 현장성이 있어 마을에 직접 참여·관여, ② 지역 기관과의 협력체계, ③ 중앙단위, 시·도 단위, 시·군 단위 3단계 조직형태, ④ 어업인 등 행정서비스 및 계획서 마련 등 서비스 제공, ⑤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가능, ⑥ 관료화 방지 제도, ⑦ 중간조직에 대한 철저한 사후 평가, ⑧ 조직규모가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출발, ⑨ 중간단위 전문가 풀 제공 및 전문가 매칭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함

■ 어촌 6차산업화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사업관리에 있어 사업계획단계, 사업실행단계, 사업완료단계의 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
 - 사업계획단계에서는 6차산업화 정책목표의 일치,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 검토, 지방비, 자부담 확보 여부 등의 행정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
 - 사업실행단계에서는 사업 집행의 관리, 계획대비 진척도 등을 관리하여 지연에 대한 문제진단과 대응, 지속적으로 공동체가 참여와 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사업완료단계에서는 사업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사업성과 및 성과확산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1)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을 위한 로드맵을 국정 100대 과제로 발표하였다.¹⁾ 이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6차산업화 고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위해 6차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재생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100대 국정과제 중 81번 국정과제인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1) 국가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농산어촌 조성’을 위해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 경제모델 정립’이라는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 즉, 6차산업화를 통해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6차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전통산업인 수산업의 침체 등 어촌사회는 지속적으로 위축²⁾

어촌사회는 지속적인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산업인 수산업이 급격히 침체되고 있어 일자리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9년 어가수가 5만 어가 이하로 감소하였고, 어가인구수도 10만 명 선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촌지역은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초저출산·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어촌사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젊고 유능한 인력유입에 한계가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은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수단으로서 전통산업인 수산업의 침체와 어촌경제 위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어촌자원의 고부가가치 및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 필요하다. 2014년부터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이 10개소에서 추진되었고, 시범사업은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통해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0), pp. 165~206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연안어촌 및 내륙어촌을 대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어촌 뉴딜300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 개발 사업대상에서 소외된 어촌지역과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어촌 6차산업화 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다. 또한, 2018년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별로 10개소의 시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어촌 6차산업화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의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어촌경제 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제2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진행 후 사업추진실태 분석을 통해 사업성과를 도출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실태를 조사하는 연구로 정량적·정성적 실태조사를 통해 어촌 6차산업화 운영실적 및 사업효과를 조사함으로써 사업진행과정에서 문제점과 사업 이후 한계점을 단계적으로 도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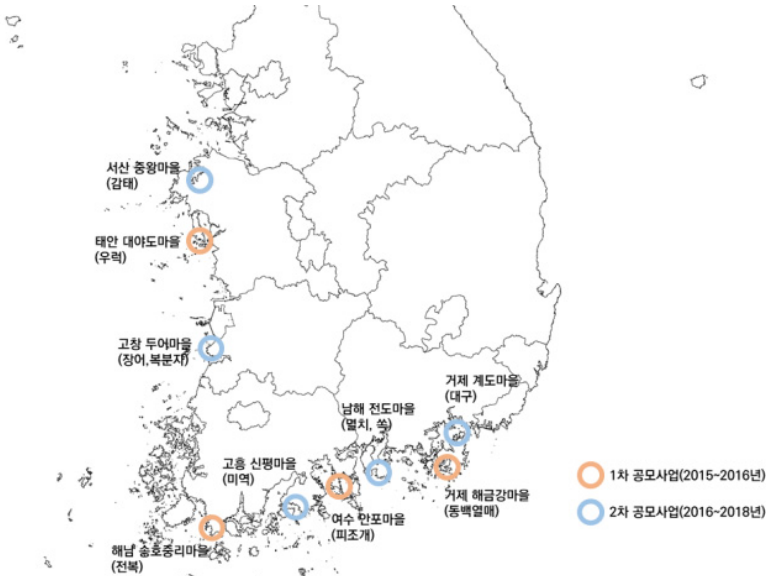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1) 연구범위

(1) 공간적 범위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10개소 중 남애어촌마을을 제외한 9개소 마을로 한정하였다. 남애어촌마을은 바닷속체험마을로 어촌 6차산업화 9개소 시범사업 모델과 사업방신의 차이가 있어 제외하였다. 어촌 6차산업화는 2014년 1차 공모사업을 통해 4개소가 선정되었고, 2015년 2차 공모사업에 5개소가 선정되어 총 9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림 1-1〉 공간적 범위



자료: 저자 작성

(2)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가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을 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로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개요로 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및 수행체계 등을 기술하였다.

제2장은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이 추진된 9개 지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제3장은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운영실적을 검토하였고, 시범마을 간 운영실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제4장은 어촌6차산업화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전 준비단계, 사업진행단계,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하여 해당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자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 및 정책제언으로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어촌6차산업화 사업시행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전담기관의 역할강화, 운영모니터링 강화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조사, 현장조사, 운영실적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이 수행되었다. 특히, 운영실적 분석은 어촌 특화지원센터와 시범사업 대상마을에서 제공한 실적을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실적이 미흡한 마을은 마을별 운영현황을 통해 어촌 6차 산업화의 문제점과 한계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또한, 사업이 미완료된 마을과 운영 실적이 미흡한 마을은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1) 연구 수행방법

(1) 문헌조사

본 연구는 국내 6차산업화와 관련한 재정사업의 추진실태와 관련된 선행연구, 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검색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진이 검토하였다. 특히, 엘케이경영연구원(2015)이 수행한 지역농업특화기술지원사업 등 6차산업화 시범사업 성과분석과 농정연구센터(2016)가 수행한 농식품의 6차산업화 지원사업 성과분석이 운영실적 분석 및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참조가 되었다.

(2) 현장조사

어촌 6차산업화 현장조사는 우선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경남(거제 해금강마을, 계도마을, 남해 전도마을), 충남(서산 중왕마을, 태안 중리마을), 전남(여수 안포마을, 해남 송호·중리마을) 등의 지역을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해당 어촌계 및 어촌 특화지원센터 등과 면담을 병행하였다.

〈그림 1-2〉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현장조사(경남 거제, 전남 여수)



자료: 저자 촬영(촬영일: 2019. 10. 18, 2019. 11. 25)

(3) 실적분석

사업이 추진된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9개소 마을에 사업운영과 관련된 실적자료를 요청하였고, 체계적인 양적자료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매출, 순이익, 방문객 등 최소한의 실적지표가 확인되는 5개소 마을에 대해서 실적분석을 진행하였다.

(4) 전문가 자문

본 연구는 연구기획 단계에서 부산, 경남, 전남, 충남, 강원도의 어촌특화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브랜드 전문가, 지역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와 자문을 구하였고, 그 내용을 연구방향성 설정에 참고하였다.

2) 연구 추진체계

〈그림 1-3〉 연구수행 체계도



3) 연구추진의 한계점

본 연구는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문제점 및 한계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어촌 6차산업화 실태조사를 하는 데 몇 가지 한계점이 있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 9개소 시범사업마을은 사업실적에 대한 자료가 구체적이지 못하였고,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체 매출액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동일한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성되지 못해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실태조사는 사업의 진행단계와 완료단계로 구분하여 사업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 진행하여야 하지만, 1차 시범사업은 시기상 이미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고, 2차 시범사업은 사업진행 중에 있어 동일한 사업과정의 문제점과 사업 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실태조사는 사업준비부터 사업진행,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되는 사후관리 시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분석되어야 하지만, 일부 시범사업의 사업주체 리더가 바뀌어 사업준비 및 진행과정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제 2 장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실태

제1절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실태

1. 법적근거 마련

어촌 6차산업화는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했던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³⁾이 개정(2015. 3. 27)되면서 어촌특화의 정의(제2조), 중간 지원조직(제28조의2), 보조 및 융자(제4조, 제32조의2) 등 실질적인 실행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촌 6차산업화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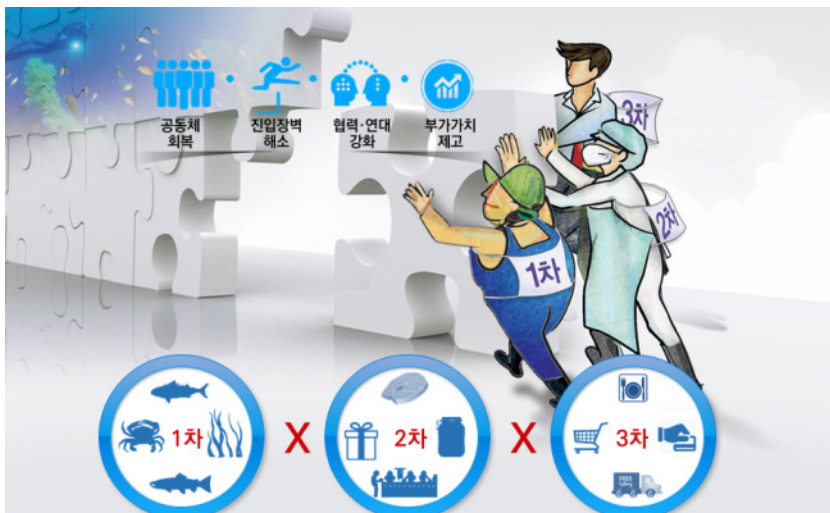
어촌 6차산업화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조 “어촌특화”로 규정하고 있다. 어촌특화란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 자연, 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 가공 등 제

3)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20. 2. 6)

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어촌지역의 공동체가 1차, 2차, 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 또는 높이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어촌 6차산업화는 어촌사회의 폐쇄성과 높은 진입장벽뿐만 아니라 이완·해체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어촌공동체의 새로운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정책방안으로 마련되었다. 어촌 6차산업화는 성공적인 추진과정을 통해 어촌공동체 회복, 진입장벽 완화·해소, 협력·연대 강화, 부가가치 제고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어업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어촌사회는 수산자원 감소와 유통구조의 한계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고, 청년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도입되었다.

〈그림 2-1〉 어촌 6차산업화 개념도



자료: 해양수산부(2015a), 표지

2)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운영

어촌 6차산업화는 생산중심의 어촌공동체가 가공, 유통·관광 등 사업의 다각화와 전문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의 제2항⁴⁾에 그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경남·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2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총 10개 시·도의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3개소(인천, 경남, 제주), 한국농어촌공사 2개소(경기, 전북)로 50% 어촌특화지원센터를 2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운영기간은 2~4년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2-1〉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운영 현황

구분	운영기관	지정일자	운영기간
부산어촌특화지원센터	한국수산자원공단	2018.06.18	2년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	한국어촌어항공단	2018.06.01	2년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2018.05.01	2년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한국어촌어항공단	2016.04.18	4년
경북어촌특화지원센터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2018.05.01	2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광주일보·전남대학교 컨소시엄	2016.04.18	4년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2018.05.01	2년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	충남연구원	2017.06.23	3년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	강릉원주대학교	2017.06.23	3년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	한국어촌어항공단	2018.05.01	2년

자료: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8년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결과 알림」(검색일: 2019. 11. 30)

4)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업무 수행내용

- ① 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 ②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 ③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 ④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 보조 및 융자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어촌의 발전과 어촌특화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4조, 제3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어촌 6차산업화의 사업단위 지원규모는 10~15억 원이며, 그 내용은 크게 S/W와 H/W로 구분하고, 그 사업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1) S/W 분야

S/W 분야 지원은 역량강화, R&D, 컨설팅 등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인프라를 제외한 지원이 가능하고,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표 2-2〉 어촌 6차산업화 S/W 분야 지원내용

단위사업	세부내용
사업역량 제고	교육프로그램, 워크숍·토론회 개최, 벤치마킹 등
연구·개발	신제품 개발, 브랜드 개발, 제품 개발, 지적 재산권화 등
컨설팅	사업계획, 추진방향, 경영컨설팅 등
홍보·마케팅	홍보 프로그램 운영, 마케팅 비용 지원, 박람회 참가 등

자료: 해양수산부(2016b), p. 5

(2) H/W 분야

H/W 분야 지원은 6차산업화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시설로 생산증대, 제조·가공·유통, 문화·관광 등 하드웨어 시설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표 2-3〉 어촌 6차산업화 H/W 분야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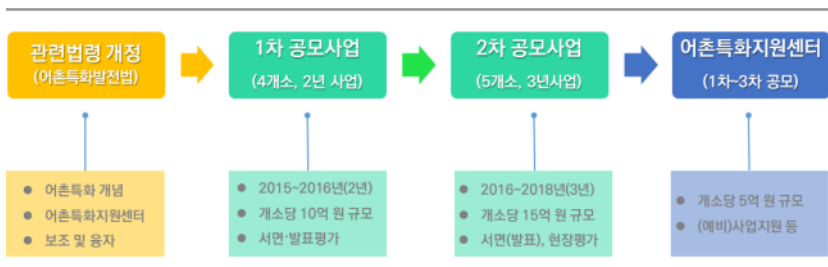
단위사업	세부내용
생산증대	생산량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중심
제조·가공·유통	생산유통, 가공분야 시설 등
문화·관광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 체험, 관광사업 관련시설 등
ICT 융복합 기술	생산관리, 관광분야 융합기술 개발 등

자료: 해양수산부(2016b), p. 5

4) 추진경과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은 2015년 3월 「어촌특화발전법」개정을 통해 추진근거와 지원기반을 마련하였고, 이후 1차 공모(4개소), 2차 공모(5개소)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총 9개소를 추진하였다.⁵⁾ 한편, 해양수산부는 2차 공모사업 이후 시도별 중간지원조직 마련을 위해 어촌특화지원센터를 3차에 걸쳐 공모하여 단계적으로 지정·운영에 나섰고, 2018년 1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⁶⁾

〈그림 2-2〉 어촌 6차산업화 추진경과



자료: 저자 작성

5) 어촌개발지원단(2019d), p. 1

6) 어촌개발지원단(2019d), p. 3

(1) 1차 공모사업⁷⁾

1차 공모사업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0억 원(국고 50%, 지방비 50%) 규모를 지원하였다. 1차 공모는 화성시, 군산시, 통영시 등 모두 7개소의 어촌마을에서 공모하였고, 행정,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평가 없이 어촌공동체의 서면 및 발표평가가 이루어졌고, 거제(해금강마을), 태안(대야도마을), 해남(송호·중리마을), 여수(안포마을) 등 최종적으로 4개소가 선정되었다.

1차 공모사업은 지역여건과 실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공모를 통한 사업지역 선정 이후에도 공모평가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절차를 통해 사업계획

〈그림 2-3〉 어촌 6차산업화 1차 공모사업 추진과정(관계기관 협의회)



자료: 저자 촬영(촬영일: 2014. 8. 7)

7) 해양수산부(2015b) pp.59~100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확정까지 사업추진의 완결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 관련분야 전문가, 어촌공동체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2) 2차 공모사업⁸⁾

2차 공모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개소에 대해 사업기간을 3년, 사업규모도 15억 원(국고 50%, 지방비 50%)으로 확대하여 지원하였다. 2차 공모사업은 1차 공모와는 다르게 현장평가 등을 통해 지역여건과 실행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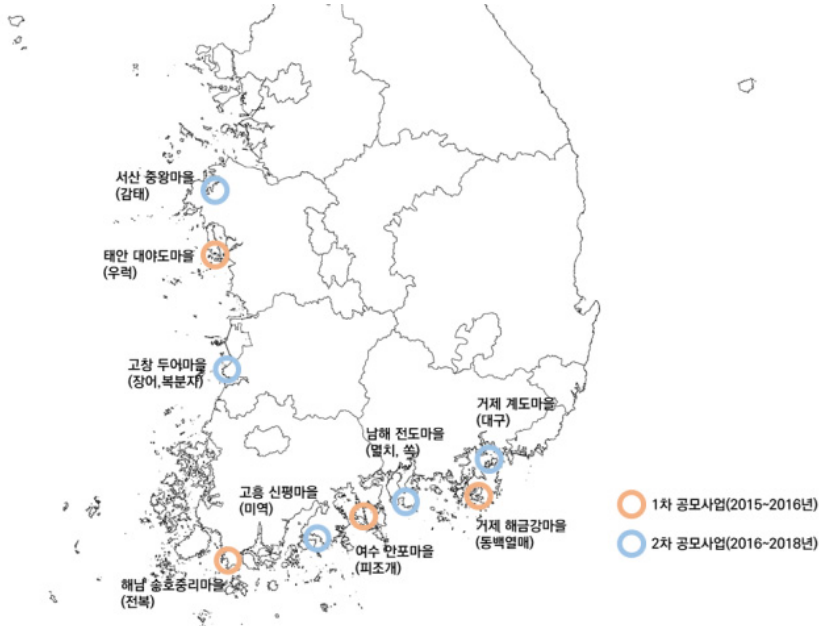
〈표 2-4〉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선정절차



자료: 해양수산부(2016b), p. 7

8) 해양수산부(2017), pp. 9~38 내용 참조하여 저자 작성

〈그림 2-4〉 어촌 6차산업화 1·2차 공모사업 선정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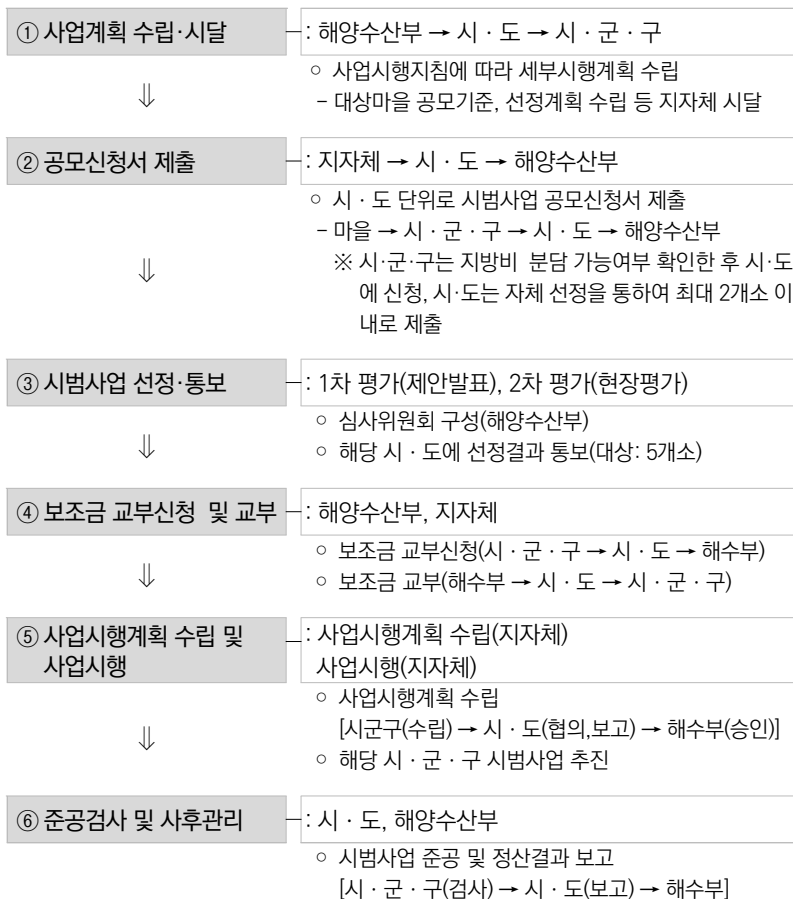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어촌 6차산업화 추진체계

1) 사업추진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은 〈그림 2-5〉에서 제시된 6단계로 추진되었으며, 공모단계(①~③), 계획 및 실행단계(④~⑥)로 세분화된다. 동 사업은 지자체 공모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역 간 경쟁을 통한 공정성 확보와 사업지역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2-5〉 어촌 6차산업화 추진체계



자료: 해양수산부(2016b), p. 7

2) 시범사업 실태조사 추진방향

해양수산부는 어촌 6차산업화의 시범사업 실태조사를 위해 계획단계, 실행단계, 완료단계 이후로 세분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실태조사로 검토되었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획단계

계획단계는 시범사업 공모과정부터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이르기까지 ① 창업계획의 충실성, ② 어촌공동체의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역량강화 활동과 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있다.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은 공모선정 이후 역량강화 교육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였다. 실태조사 내용은 역량강화 활동에 따른 교육과정 목표의 달성정도, 참여하는 어촌공동체의 역량강화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역량강화의 내실화와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과정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실행단계

실행단계는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이 예산, 사업기간에 맞춰 적기에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지표에 해당된다. 실행단계에서는 ① 시범사업 집행률(공정률), ② 시범사업 완공률로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완료단계 이후

완료단계 이후는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의 실질적인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단계로 5년 이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목표는 크게 지역사회 공헌도(① 수익금 재투자액, ② 수익금 지역환원액 비율, ③ 어촌공동체 참여율), 일자리 창출(일자리 수), 부가가치 향상(① 부가가치율, ② 매출액 증가율) 등 산출지표와 결과지표를 검토하였다.

어촌 6차산업화는 어촌공동체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소득창출 등 정량적인 성과와 결속력 강화, 갈등관리, 어촌주민 사업 만족

도 등 정성적인 성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표 2-5〉는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향 및 모델연구에서 검토되었던 정량적인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이며, 이번 연구에서는 완료된 시범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분석을 위해 일자리 수, 부가가치, 매출 규모 등을 살펴보았다.

〈표 2-5〉 어촌 6차산업화 성과분석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비고
계획단계	창업계획 충실성 어촌공동체 참여도	① 역량강화 교육목표 달성률 (인원, 시간) ② 역량강화교육 만족도 (결속력, 갈등, 마을 비전 등)	투입지표 산출지표
실행단계	계획적·실효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노력 여부	① 사업 집행률 ② 시범사업 완공률	과정지표
완료단계 이후	지역사회 공헌도	① 수익금 재투자액 ② 수익금 지역환원액 비율 ③ 어촌공동체 참여율 (전체, 여성, 고령자, 귀촌인)	산출지표 결과지표
	일자리 창출	④ 일자리 수	
	부가가치 향상	⑤ 부가가치율 ⑥ 매출액 증가율	

자료: 해양수산부(2015a), p. 180의 내용을 저자가 재작성

제2절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은 1차 공모는 4개소 모두 완공되었으며, 2차는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준공예정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

〈표 2-6〉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현황

	구분	핵심자원	6차산업화 방안	비고
1차	해금강마을 (경남 거제)	• 동백열매 • 기름제품, 공예품	• (1차) 동백열매 채취 • (2차) 공예, 기념품 생산 • (3차) 전시판매, 체험프로그램	완공 (2016. 10)
	대야도마을 (충남 태안)	• 바지락, 우럭 • 반건조 우럭	• (1차) 우럭, 바지락 생산 • (2차) 우럭 가공시설 조성 • (3차) 레스토랑 및 판매장 운영	완공 (2016. 5. 24)
	송호중리마을 (전남 해남)	• 전복 • 전복빵	• (1차) 전복 생산 • (2차) 전복빵 제조시설 • (3차) 레스토랑 및 판매장 운영	완공 (2017. 1. 18)
	안포마을 (전남 여수)	• 새조개 및 피조개 • 피조개 분말 등	• (1차) 새조개, 피조개 생산 • (2차) 분말 가공시설 • (3차) 레스토랑 및 민박 운영	완공
2차	중앙마을 (충남 서산)	• 감태 • 조미감태	• (1차) 감태 생산 • (2차) 조미감태 가공시설 조성 • (3차) 유통판매, 체험프로그램	완공
	두어마을 (전북 고창)	• 복분자, 장어 • 진액 파우치 등	• (1차) 가무락, 장어 생산 • (2차) 진액 가공시설 조성 • (3차)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완공 (2019. 7. 30)
	신평마을 (전남 고흥)	• 미역 • 건조미역(소포장)	• (1차) 미역 생산 • (2차) 건미역 가공시설 조성 • (3차) 유통판매	준공 예정
	계도마을 (경남 거제)	• 대구 • 대구 필렛 등	• (1차) 대구 생산 • (2차) 대구 필렛 및 젓갈 가공 • (3차) 관광객 판매	준공 예정 (2019. 12)
	전도마을 (경남 남해)	• 멸치 • 멸치 액젓	• (1차) 즉방멸치 생산 • (2차) 멸치액젓 가공 • (3차) 체험프로그램 운영	추진 중 (토지형질변경)

자료: 어촌개발지원단, 2019d, p. 1를 참고하여 저자가 재작성

1. 1차 공모사업 현황(2015~2016년)

1) 경남 거제 해금강마을

(1) 지역여건

해금강마을은 해상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유람선사업(외도↔해금강)을 통해 소득이 높았던 관광어촌이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문제로 고소·고발 등 공동체가 황폐화되는 어려움을 겪었고,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역량강화 사업(2013. 8. 25~2013. 11. 6)으로 갈등완화와 지역의 유희자원이었던 동백열매를 활용한 마을공동체회사 설립(2014. 8. 1) 등 마을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6〉 해금강마을 현황



자료: 거제시(2014)의 사진을 정리

(2) 사업내용 및 추진

해금강마을은 지역 내 유람선터미널 1층을 임대하여 마을의 핵심자원인 동백열매와 껍질을 활용한 관광기념상품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유람선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판매하는 사업모델을 추진하였다.

〈그림 2-7〉 해금강마을 6차산업화 사업내용



자료: 해양수산부(2015a), p. 164

해금강마을 6차산업화는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공동체 주도의 사업 추진동력을 결집하고, 소규모 가공설비, 전시·판매장 등 인프라 구축, 동백제품 전문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과정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컨설팅과 선진사례 견학 등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 핵심자원 및 추진방안

해금강마을의 핵심자원은 버려졌던 동백열매를 활용한 미용제품, 및 기름제품, 겹질공예·공방을 통한 상품판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특히, 동백열매는 화장품 생산업체에 원료를 공급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2-8〉 해금강마을 6차산업화 핵심 상품



자료: 저자 촬영(촬영일: 2016. 11. 14)

해금강마을 6차산업화는 버려졌던 동백열매를 자원화하여 채취과정을 마을 내 고령자 일자리로 창출하고, 수확한 동백열매와 껍질을 가공하여 상품화하고, 이를 유람선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다만, 관광객의 니즈분석에 따른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나 유람선 관광객의 지불의사금액, 선호상품, 판매방식 등 마케팅 전략을 고도화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보다 고차원적인 6차산업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2-7〉 해금강마을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안

구분	현행		추진방안
1차산업	• 돌미역, 툇, 전복 등 단순 채취 및 어선어업 • 동백군락지에서 열매 단순 채취	⇒	• 마을공동사업으로 특화자원 (돌미역, 툇, 동백열매) 생산 • 여성·고령자 참여자 공동체 화합
2차산업	• 돌미역, 툇 등 해조류 자연건조 (개별사업)	⇒	• 해조류 건조가공제품 생산 • 동백제품(겉질 공예, 동백기름 화장품) 생산
3차산업	• 자연자원, 어촌경관 및 문화자원 활용 미흡 • 음식점(횃집) 운영, 숙박시설 • 해금강 유람선 관광, 낚시 관광	⇒	• 자연, 경관,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활성화 • 특산물 판매 • 유람선 관광객 대상 동백겉질 공예품 만들기 체험

자료: 어촌개발지원단(2019d), pp. 12~13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2) 충남 태안 대야도마을

(1) 개요

가. 지역여건

대야도마을은 갯벌체험, 낚시객 등 체험활동과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농어촌민박(펜션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대야도마을의 주요 수산물은 패류(굴, 바지락)와 어류(우럭양식)이며, 특히 우럭을 생산하는 양식어업인은 대부분 유통상인과 주변 횃집에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지 않았다. 대야도마을은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마을 부녀회와 양식어업인이 생산하는 지역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모델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림 2-9〉 대야도마을 현황



자료: (좌)카카오 맵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우)저자 촬영(촬영일: 2019. 11. 8)

나. 사업내용

대야도마을은 마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활용하여 부녀회가 운영하는 식당, 가공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간 약 1,000톤 규모⁹⁾로 생산되는 우럭은 반건조 후 진공포장 상품을 만들어 택배, 오프라인 방식(현장관측행사, 태안군 소재 마트, 로컬푸드)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림 2-10〉 대야도마을 6차산업화 사업내용



자료: (좌)대야도 어촌계 사진제공 (제공일: 2019. 11. 27), (우)어촌개발지원단(2019d), pp. 12~13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9) 태안군(2019), p. 7

다. 추진과정

대야도마을 6차산업화는 식당 운영과 우럭 반건조 가공상품 개발을 위한 마을공동체 구성으로 이원화된 준비과정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마을식당 운영은 부녀회 구성원이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양수산부가 시행한 ‘바다셰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럭 등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반건조 우럭상품은 전남 신안 ‘乾우리기’ 어업회사법인의 가공설비 및 제조방법 등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 공동체가 상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KMI 어촌현장포럼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였다.

〈그림 2-11〉 대야도마을 6차산업화 추진과정



자료: 대야도 어촌계 제공 (제공일: 2019. 11. 27)

(2) 6차산업화 추진방안

가. 핵심자원 및 상품

대야도마을 6차산업화의 핵심자원은 우럭과 반건조 상품이다. 대야도마을은 약1,000개소 농어촌민박(펜션업)이 태안군 안면읍에 밀집하여 분포하는 지역적인 특성¹⁰⁾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판매방식과 마케팅 전략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반건조 우럭상품은 중간상인, 관내 횃집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2~3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소비자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소스 및 가정식 대체개발 (HMR: Home Meal Replacement)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림 2-12〉 대야도마을 6차산업화 핵심 상품



자료: 저자 촬영(촬영일: 2019. 11. 8)

나. 추진방안

대야도마을은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식당과 가공시설 조성으로 마을의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럭을 활용한 6차산업화는 태안 안면읍의 높은 관광 집객

10) 해양수산부(2016a), p. 29

력과 소비패턴을 고려할 때 새로운 판로개척과 판매방식 도입이 가능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대야도마을은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가공생산 기반시설의 과소화, 펜션사업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양질의 원료 수급과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표 2-8〉 대야도마을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안

구분	현행		추진방안
1차산업	• 우렁(어류양식), 해삼, 바지락, 굴, 낙지, 주꾸미 생산	⇒	• 특화마을과 우렁양식생산자 간 생산협의체 구성
2차산업	• 지역 내 소규모 바지락 가공 시설 운영(개인사업자) • 판로가 없어 중간상인 판매	⇒	• 지역수산물 꾸러미 포장상품 • 반건조우렁 특화상품 가공
3차산업	• 어촌체험마을 운영 • 체험식당운영(마을 부녀회)	⇒	• 로컬푸드 레스토랑/판매장 • 태안군 관내 펜션(1,200개소) 연계한 특화상품 판매

자료: 어촌개발지원단(2019d), pp. 4~5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3) 전남 해남 송호·중리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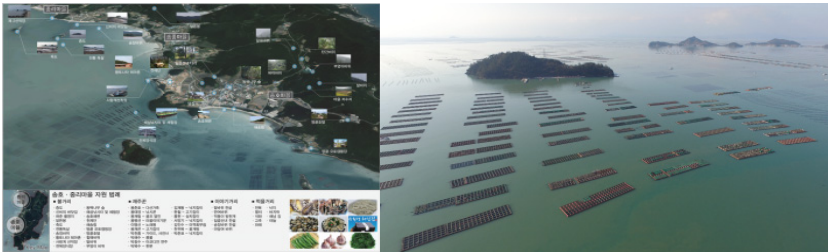
(1) 개요

가. 지역여건

송호·중리마을은 땅끝마을로 알려져 관광집객력이 높은 관광지이며, 시범사업 추진 당시에는 전복양식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마을이었다. 어촌 6차산업화 시범마을 공모과정에서 송호·중리마을은 전복양식의 시장성이 약화되는 가까운 미래에 대비하여 다양한 전복상품 개발과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특히, 땅끝마을의 브랜드와 관광매력도를 활용하여 식당, 활전복 판매장, 전복빵 등의

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마을의 일자리와 어업의 소득을 새롭게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2-13〉 송호·중리마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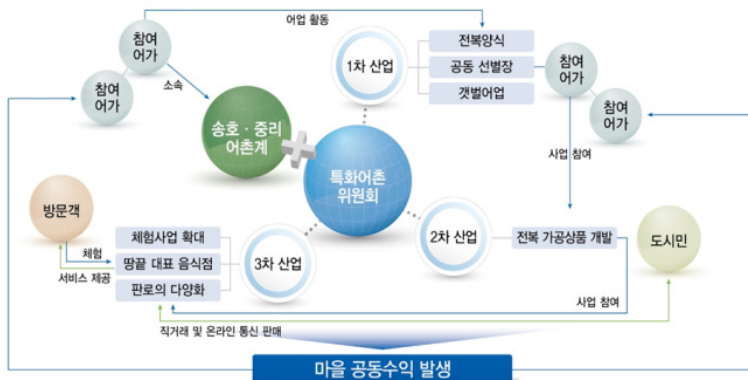


자료: (좌)해남군(2014), p. 6, (우)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검색일: 2019. 12. 10)

나. 사업내용

송호·중리마을은 전복양식 과정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활전복을 활용하여 전복빵 등 전복가공 상품을 개발하고, 기타 톳 등 해조류 수산자원을 활용한 식당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마을공동체 주도의 6차산업화 모델이다.

〈그림 2-14〉 송호·중리마을 6차산업화 사업내용



자료: 해남군(2014), p. 12

(2) 6차산업화 추진방안

가. 핵심자원 및 상품

송호·중리마을의 6차산업화 핵심자원은 활전복과 이를 활용한 전복빵, 전복음식점으로 공동체가 땅끝마을 등 해남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전략이다.

〈그림 2-15〉 송호·중리마을 6차산업화 핵심 상품



자료: (좌)해남우리신문(검색일: 2019. 11. 30), (우)네이버 블로그(검색일: 2019. 11. 30)

나. 추진방안

마을에서 주로 생산하는 전복, 해조류(툰, 다시마 등)를 활용한 상품개발과 판매를 위한 주민 역량강화,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복빵은 마을 부녀회, 청년회 등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2-9〉 송호·중리마을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안

구분	현행		추진방안
1차산업	• 전복양식, 낙지, 판매	⇒	• 생태 수용력기반 양식 전환으로 전복폐사를 최소화
2차산업	• 지역 내 소규모 전복판매장 운영 (개인사업자)	⇒	• 전복빵 제조 (상품성 낮은 전복 활용)
3차산업	• 바지선 낚시, 독살체험 • 수산물 판로	⇒	• 땅끝마을 수산레스토랑 운영 • 특화상품 판매장

자료: 어촌개발지원단(2019d), pp. 8~9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하지만 송호·중리마을은 6차산업을 추진하는 사업리더가 바뀌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부지가 변경되고, 구성원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아 수산레스토랑과 특화상품 판매장은 사업구성업원 일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한계가 보였다. 또한, 특화상품 전복쌍은 시간이 지나 딱딱해져 장기보관이 어려워 상품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복의 특화상품화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4) 전남 여수 안포마을

(1) 개요

가. 지역여건

안포마을은 새조개, 피조개 등이 연간 200~400톤 규모의 패류자원이 생산되는 갯벌 우세형 어촌¹¹⁾이지만 중간수집상에 한정된 판로 등 불안정한 가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6차산업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포마을은 체험관광객을 마을로 유입시켜 가공상품의 판매, 체험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마을의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16〉 안포마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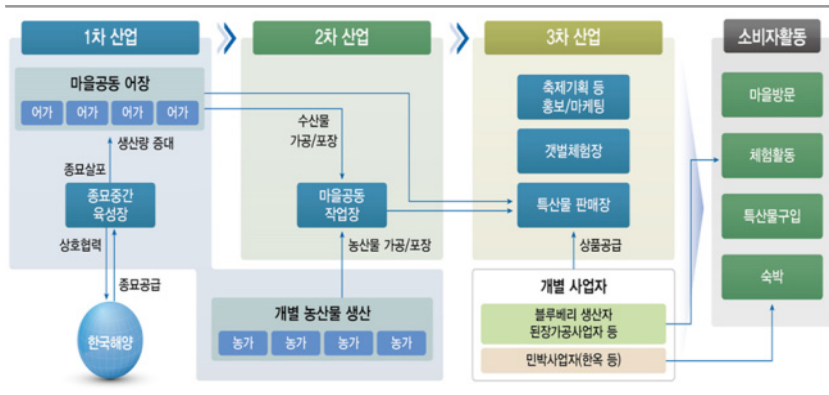
자료: 여수시(2014), pp. 12~24

11) 안포어촌계(2018)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사업내용

안포마을은 새조개, 피조개의 종묘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가공제품 생산·판매와 체험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식사제공 등을 통해 어업의 소득을 창출하는 6차 산업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포마을은 마을 내 부지를 확보하고, 수산물 가공시설, 한옥민박, 수산물 레스토랑 등을 조성하고, 어촌계가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2-17〉 안포마을 6차산업화 사업내용



자료: 여수시(2014), p. 10

(2) 6차산업화 추진방안

가. 핵심자원 및 상품

안포마을의 6차산업화 핵심자원은 새조개, 피조개 등 패류와 이를 활용한 가공상품(피조개분말, 피조개어포, 전통된장 등)을 개발하고, 이를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판매를 통해 어업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6차산업화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림 2-18〉 안포마을 6차산업화 핵심 상품



자료: (좌)여수시(2014), p. 24, (우)광주일보(검색일: 2019. 11. 30)

나. 추진방안

안포마을의 6차산업화 추진전략은 마을에서 주로 생산되는 계절성이 높은 패류(새조개, 피조개 등)를 가공하여 연중 판매가 가능한 판매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수산물 레스토랑, 한옥민박 등 어촌체험관광 인프라와 연계함으로써 관광인프라가 부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어업의 소득원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였다.

〈표 2-10〉 안포마을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안

구분	현행		추진방안
1차산업	• 새조개, 피조개 중심으로 생산 (생산량 및 유통가격 불안정)	⇒	• 새조개 종묘확보 및 중간육성 후 생산량 안정적으로 확보
2차산업	• 된장가공, 양파즙 등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개인사업자)	⇒	• 공동작업장 통해 가공품 생산 (피조개 분말제품 등)
3차산업	• 1차 생산물 중간상인 판매 • 음식점, 숙박시설 전무 • 비정기적 체험프로그램 운영	⇒	• 특화상품 직거래판매장 조성 • 계절별 수산물 레스토랑 운영 • 게메기 체험프로그램과 축제 • 한옥민박 연계 통한 관광활성화

자료: 어촌개발지원단(2019d), pp.10-11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여수 안포마을은 2019년 피조개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 피조개를 특화상품으로 제조·가공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에 비슷한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업체가 생기면서 상품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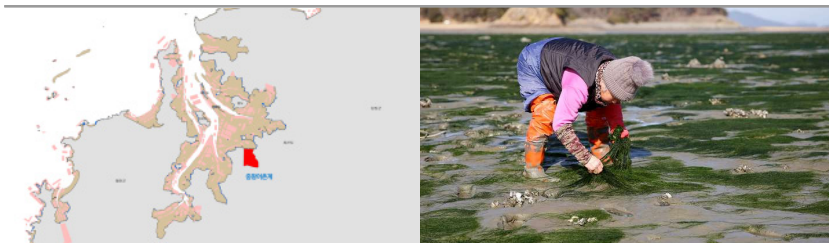
2. 2차 공모사업 현황(2016~2018년)

1) 충남 서산 중왕마을

(1) 개요

서산 중왕마을은 서산시와 태안군 일원에 형성된 가로림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서해안 갯벌이 발달한 지역으로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환경적 여건을 활용한 갯벌어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하기 전 어업인들은 생산한 감태를 세척하여 재래시장이나 중간수집상에 낮은 가격으로 넘겨 높은 소득을 올리지 못했으나, 조미감태 생산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과 마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2-19〉 중왕마을 현황



자료: (좌)ArcGIS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우)서울신문(검색일: 2020. 1.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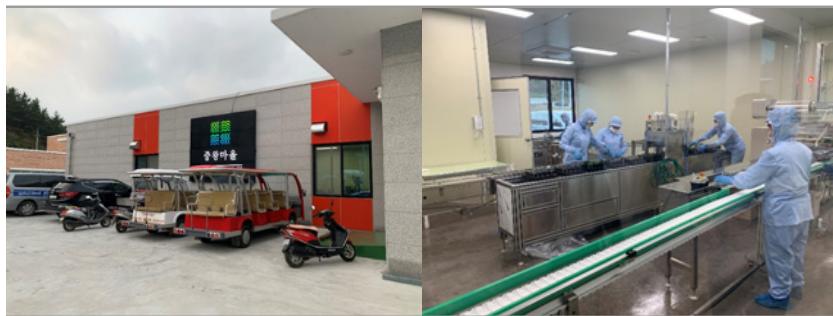
(2) 6차산업화 추진방안

가. 핵심자원 및 상품

중왕마을의 6차산업화 핵심자원과 상품은 마을어장에서 생산되는 감태와 이를 가공한 조미감태 등의 가공상품이다. 감태는 독특한 향과 맛을 선호하는 특정 소비자 계층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다. 지금까지 감태는 다양한 형태의 기호식품으로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중왕마을의 6차산업화를 통해 상품의 다각화와 시장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 개발된 조미감태, 분말 가공상품(초콜릿, 감태 양갱 등)을 기반으로 안정된 생산과 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R&D개발을 통해 스낵, 미용, 건강보조식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화 전략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림 2-20〉 중왕마을 6차산업화 핵심 상품



자료: 저자 촬영(촬영일: 2019. 10. 31)

나. 추진방안

중왕마을의 6차산업화 핵심자원은 마을어장에서 생산되는 감태와 이를 가공한 조미감태 등의 상품을 재래시장, 대형유통망(서울소재 수협 등), 학교 급식 등을 통해 판매하는 전략이다. 특히, 중왕마을은

갯벌체험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감태분말 상품(초콜릿, 감태 양갱 등)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체험활동 만족도를 높이고, 어업 외 소득도 창출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갯벌어업은 주로 어촌계 내부의 여성인력이 참여하고 있으며, 6차 산업화를 통해 조성된 가공시설에도 참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왕마을은 6차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가로림만 내 7개 어촌계에서 생산된 감태자원을 매입하여 상품화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표 2-11〉 중왕마을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안

구분	현행		추진방안
1차산업	• 감태, 바지락, 낚시, 주꾸미 생산 • 대부분 유통상인 판매 (가격불안정)	⇒	• 새조개 종묘확보 및 중간육성 후 생산량 안정적으로 확보
2차산업	• 감태를 인근 가공시설에 보내 조미감태 상품 생산 (OEM 생산방식)	⇒	• 수산물 가공시설 조성 (조미감태 가공) • 감태분말 상품 (초콜릿, 감태 양갱 등)
3차산업	• 바지락 어촌체험마을 운영 (4천명 규모)	⇒	• 조미감태 유통망 판매 (학교 급식, 서울소재수협 20개소) • 감태 분말 초콜릿 만들기 체험 (갯벌체험과 연계한 상품)

자료: 해양수산부(2017), p. 62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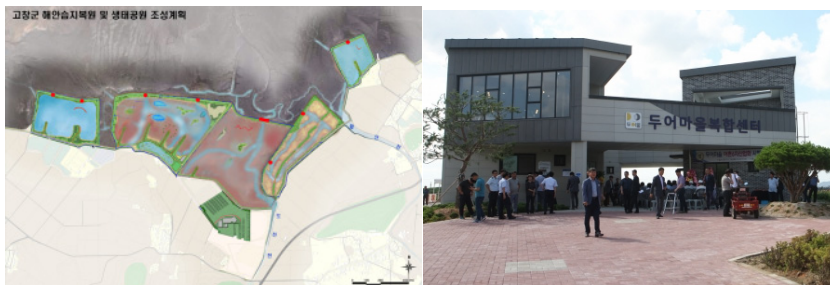
2) 전북 고창 두어마을

(1) 개요

두어마을은 농업과 수산업이 양립하는 전형적인 반농반어의 마을이다. 이 마을은 최근 람사르고창갯벌센터를 중심으로 갯벌생태관광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수산물과 농산물을 가공·판매하여 새로운 소득원과 마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림 2-21〉 두어마을 현황



자료: (좌)고창군(2009), 삽도, (우)KNS 뉴스통신(검색일: 2019. 12. 13)

(2) 6차산업화 추진방안

가. 핵심자원 및 상품

두어마을의 6차산업화 핵심자원과 상품은 지역특산물인 복분자와 장어를 활용한 진액 파우치 가공상품이다. 두어마을은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을 통해 가공설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을상품을 개발하여 갯벌 센터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림 2-22〉 두어마을 6차산업화 핵심 상품



자료: (좌)한국어촌어항공단, 보도자료(2016. 10. 26), (우)충도일보(검색일: 2019. 12. 13)

나. 추진방안

두어마을은 지역성이 강한 복분자와 장어 등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가 상품을 직접 가공하고 고창갯벌센터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방식의 6차산업화를 실행하고 있다.

〈표 2-12〉 두어마을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안

구분	현행		추진방안
1차산업	• 가무락, 바지락, 장어 등	⇒	• 인근 어촌계와 생산자협의체 (하전, 만들어촌계)
2차산업	• 복분자, 장어 등 진액 파우치 상품 가공	⇒	• 현행 방안 유지
3차산업	• 판로가 없어 중간상인 판매	⇒	• 로컬푸드 레스토랑/판매장 운 (고창 갯벌습지센터와 연계)

자료: 해양수산부(2017), p. 63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3) 전남 고흥 신평마을

(1) 개요

신평마을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해태(김)를 생산하여 전성기를 누렸으나, 지금은 당시 산업유산으로 그 자취가 훗물스럽게 남아 있다. 이 마을은 미역, 김 등 해조류 양식업이 발달한 어촌마을로 물미역 등 원물 생산 후 염장 등 전처리 상태로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상품을 특화시키지 못하여 지역브랜드화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 어촌계 등 마을공동체는 어촌 6차산업화 공모를 통해 가공설비를 갖추고 자체 브랜드와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소포장 소비자 친화형 상품을 개발하고, 특화상품을 유통시키는 사업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23〉 신평마을 현황



자료: (좌)연합뉴스(검색일: 2019. 12. 13), (우)저자 촬영(촬영일: 2016. 11. 15)

(2) 6차산업화 추진방안

가. 핵심자원 및 상품

신평마을은 지역 내 생산하는 원물의 미역과 건조가공 미역상품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마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6차산업화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신평마을은 기 개발된 지역상품과의 차별성과 브랜드화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촌계 중심의 마을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 2-24〉 신평마을 6차산업화 핵심 상품



자료: (좌)경향신문(검색일: 2019. 12. 13), (우)인빌쇼핑, 명천염장우리미역(검색일: 2019. 12. 13)

나. 추진방안

신평마을은 원물생산기반의 어촌마을에서 직접 가공설비를 구축하고, 이를 브랜드화하여 새로운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부가가치 제고와 마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6차산업화 모델이다. 특히, 산모, 기념일(돌, 생일 등) 등 특정 목표를 선정하여 전략상품을 모색하고, 유통망을 통해서만 일반 소비자들이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화와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표 2-13〉 신평마을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안

구분	현행		추진방안
1차산업	• 어촌계를 중심으로 미역생산	⇒	• 어장관리 통해 지속적인 생산기반 확보 • 관내 미역 생산협의체 구성
2차산업	• 원물에서 전처리·염장 상태로 상품화	⇒	• 건미역 특화상품 개발 (소포장: 소비자 니스상품)
3차산업	• 판로가 없어 중간상인 판매 (완도지역 가공업체로 유통)	⇒	• 유통망 판매 (농협 하나로마트 및 유통업체)

자료: 해양수산부(2017), p. 64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4) 경남 거제 계도마을

(1) 개요

계도마을은 거제시 가조도 북쪽에 위치하는 어촌마을로 수산업이 발달해 있고, 최근에는 소규모 마리아나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 마을은 어촌 6차산업화를 통해 지역 내 생산되는 대구를 가공(필렛(Fillet), 건조)하여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직거래판매 또는 관광객이 체류하는 농어촌민박(펜션)을 대상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화 모델을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대구가 어획량이 안정적이지 못해 넙치(광어) 자원을 통한 사업모델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림 2-25〉 계도마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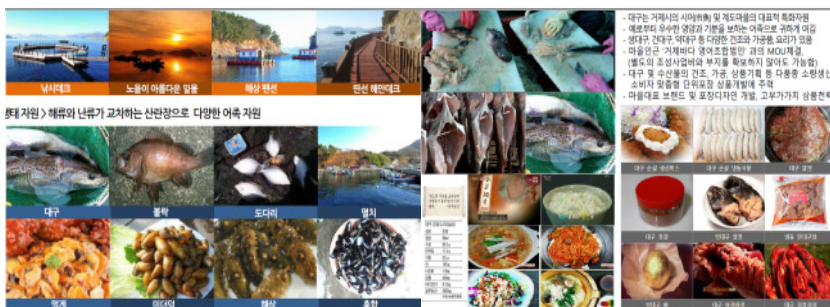
자료: (좌)바다여행, 거제 계도마을(검색일: 2019. 12. 13), (우) 저자 촬영(촬영일: 2016. 11. 14)

(2) 6차산업화 추진방안

가. 핵심자원 및 상품

계도마을의 6차산업화 핵심자원과 상품은 대구와 대구를 이용한 스테이크(Fillet), 반건조, 내장(젓갈) 등의 다양한 접근이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대구의 생산량이 안정적이지 못해 사업화에 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계도마을은 전략상품을 대구에서 넉치로 완전히 전환하고, 다시 상품화와 마케팅 전략에 대한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그림 2-26〉 계도마을 6차산업화 핵심 상품



자료: 거제시(2016), p. 7, 13

나. 추진방안

계도마을은 지역의 핵심자원을 대구로 설정하고, 대구 어선어업자 간 생산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가공상품과 판로개척을 통해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불안정한 대구 어획량으로 인해 전략상품을 넙치(광어)로 전환하고, 다시 상품개발과 6차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4〉 계도마을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안

구분	현행		추진방안
1차산업	• 대구 年 500톤 내외 생산 (선어 400톤, 활어 100톤)	⇒	• 대구 지속적 생산을 위해 어획량 조절(자율관리 강화) • 대구 어선어업자와 생산협의체 구성
2차산업	• 별도 가공제품 없음	⇒	• 대구 스테이크 및 필렛 가공 • 대구 부산물 활용한 젓갈제품 생산
3차산업	• 어촌체험마을 운영(年 4만 명) • 마을부녀회 직영 식당 운영	⇒	• 특화상품 직거래판매장 조성 • 거제시 관내 어촌민박 판매 (어촌계-펜션협의체 MOU 체결)

자료: 해양수산부(2017), p. 66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5) 경남 남해 전도마을

(1) 개요

전도마을은 남해 창선도와 본 섬 사이에 있는 갯벌어업과 죽방렴이 발달한 반농반어 86가구(156명 거주)의 소규모 어촌마을이다. 이 마을은 죽방멸치로 특화된 지역으로 죽방렴 멸치를 활용한 건조, 멸치액젓을 마을사업으로 전환하여 위생, 안전, 브랜드, 판로개척 등을 통해 개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마을발전의 계기로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가공시설 입지에 따른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행정, 전문기관(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 2-27〉 전도마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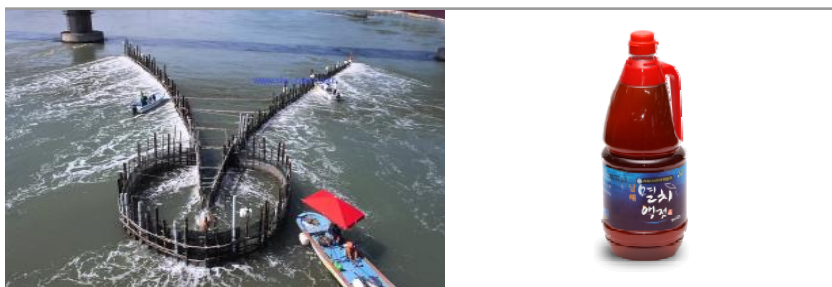
자료: (좌)남해군(2016), p. 6 (우) 저자 촬영(촬영일: 2016. 11. 14)

(2) 6차산업화 추진방안

가. 핵심자원 및 상품

전도마을의 6차산업화 핵심자원과 상품은 죽방렴 멸치와 멸치를 활용한 건멸치, 멸치액젓으로 남해군을 찾는 관광객과 외부 유통망을 통해 부가가치와 마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그림 2-28〉 전도마을 6차산업화 핵심 상품



자료: (좌)KBS 다큐, 죽방렴(감색일: 2019. 12. 13), (우)주채선해(감색일: 2019. 12. 13)

나. 추진방안

전도마을은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죽방멸치와 높은 지역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가 죽방멸치의 전략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관광객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마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사업추진이 행정의 인허가 절차상에서 지체된 만큼 서둘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경남특화지원센터의 노력이 필요하다.

〈표 2-15〉 전도마을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안

구분	현행		추진방안
1차산업	• 파래, 죽방멸치, 썩 (소량 다품목 → 소득/일자리 한계)	⇒	• 인근 마을과 생산협의체 구성 (소량 다품목 생산 한계 극복)
2차산업	• 죽방멸치(건조) • 멸치액젓(개별사업)	⇒	• 수산물 가공시설 (죽방멸치 및 멸치액젓 특화상품 가공)
3차산업	• 어촌체험마을 운영(年 2만 명)	⇒	• 특화상품 직거래판매장 조성 • 수산물 레스토랑 운영

자료: 해양수산부(2017), p. 65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3.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관리

1) 추진배경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의 모니터링은 집행 예산 대비 성과를 체계적,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과 같이 2~3년의 단기간 추진되는 경우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목표, 예산집행, 성과 등이 지속

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어촌 6차산업화의 시범사업 사업관리는 마을공동사업의 창업에 따른 진행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기초로 경제적 효과, 사회적 서비스 성과, 공동체 유지 등 관점에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2) 사업주체

현재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의 모니터링은 어촌개발지원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어촌개발지원단은 2018년부터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단의 사업내용은 일반농어촌개발사업의 신규사업성 평가·관리, 어촌개발사업 관리·평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운영, 지특회계 사업지 평가관리, 어촌특화지원센터 및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평가관리, 어촌특화역량강화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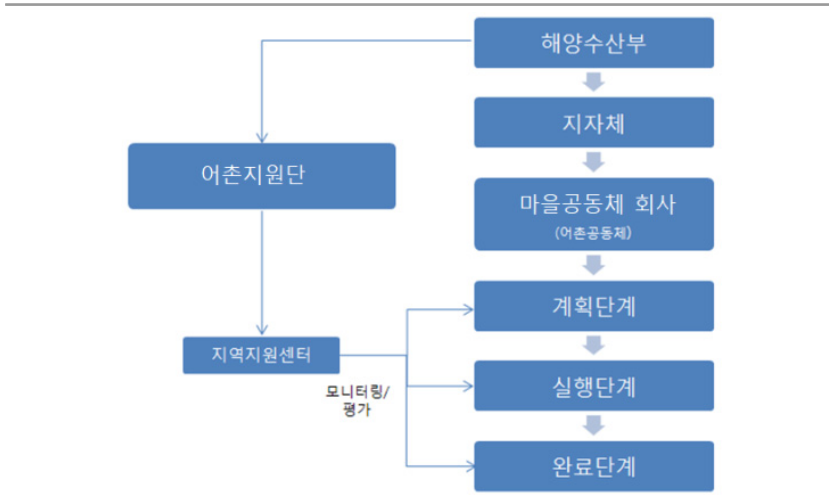
〈표 2-16〉 어촌개발지원단 사업내용

구 분	사업내용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사업성 평가·관리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 사업설명회 개최 및 가이드라인 작성 지원 • 현장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어촌개발사업 관리·평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관리시스템 개발·운영, 안정화 및 최적화 • 사업신청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지특회계 사업지 평가·관리	• 지특회계사업의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어촌특화지원센터,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 평가·관리 등	• 신규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평가 •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어촌특화역량강화	• 어촌주민 역량강화 컨설팅 • 바다가꿈 프로젝트 추진

자료: 해양수산부(2018), p. 3

현재 어촌지원단은 시도별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어촌특화지원사업으로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촌특화지원센터는 6차산업화 시범사업을 계획단계, 실행단계, 완료단계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연도별로 사업을 평가하도록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29〉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자료: 저자 작성

2016년부터 지정된 어촌특화지원센터(경남, 전남)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 6차산업화 등을 지원하며, 시범사업 이외의 어촌마을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어촌마을이 6차산업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17년 충남과 강원도의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지정되었고, 2018년 부산, 인천, 경기, 전북, 제주의 5개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지정되어 현재 전국 10개소의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1차로 수행된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은 경남 1개소, 전남2개소, 충남 1개소로 경남·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가 2016년부터 모니터링 및 사업관리를 수행하였고, 2차로 추진된 시범사업 5개소(경남 2, 충남 1, 전북 1, 전남 1)로 경남, 전남, 충남, 전북의 어촌특화지원센터가 모니터링하고 있다.

3)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모니터링은 크게 예산집행과 사업관리 부분으로 나누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예산은 연도별 집행금액을 통해 실적집행을 산출하고 있으며, 사업관리는 사업내용의 조성 여부 및 운영실적(매출액 및 방문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1) 예산집행 모니터링

2019년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의 예산 실적내용(2019. 9 말)을 보면, 마을별 총 교부액은 7.5억 원으로 5개 대상마을은 기본계획이 2016년 중·후반에 승인되어 2016년 사업이 어려웠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집행되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건립부지의 용도변경과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집행이 순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5개 마을 예산 교부액 37.5억 원 중 37억 원(82.8%)이 실 집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해 전도마을은 토지 용도변경이 늦어져 착공이 지연되었고, 이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제 계도마을은 12월 준공하여 집행이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은 사전에 예비계획을 미리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에 있어 부지변경이나, 사업변경 등

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비계획서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7〉 2차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의 실적현황(2019.10)

단위: 백만 원, %

어촌마을	연도	교부 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B/A)	집행내역
서산 중앙마을	2016	250	-	250	0	250	-	0.0	2017년 이월
	2017	250	250	500	0	500	-	0.0	2018년 이월
	2018	250	500	750	115	635	-	15.3	-
	2019	-	635	635	635	0	-	100	-
고창 두어마을	2016	250	-	250	-	250	-	0.0	2017년 이월
	2017	250	250	500	94	406	-	18.8	위탁사업지급
	2018	250	406	656	406	250	-	61.9	2019년 이월
	2019	-	250	250	250	0	-	100	-
고흥 신평마을	2016	250	-	250	0	250	-	0.0	2017년 이월
	2017	250	250	500	25	475	-	5.0	기본계획비
	2018	250	475	725	35	490	-	4.8	세부설계비
	2019	-	690	690	690	0	-	100	-
남해 전도마을	2016	250	-	250	-	250	-	0.0	2017년 이월
	2017	250	250	500	250	250	-	50.0	위탁사업비
	2018	250	250	500	-	500	-	0.0	2019년 이월
	2019	-	500	500	0	500	-	0.0	-
거제 계도마을	2016	250	-	250	-	-	-	0.0	2017년 이월
	2017	250	250	500	172	328	-	31.4	역량강화
	2018	250	328	578	79	499	-	13.7	HACCP인증
	2019	-	499	499	354	145	-	80.7	-

자료: 어촌개발지원단(2019a)

(2) 사업관리 모니터링

시도별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운영관리 활성화 방안 논의(2018. 10)를 통해 시도의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대상마을을 직접 관리하고, 이력관리, 실적관리, 모니터링 관리카드를 만들어 수행하고, 어촌개발지원단에 사업실태를 보고하고 있다.

2018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1차 시범사업은 최초 승인 시 계획되었던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운영주체 구성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차질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1차 시범대상마을은 사업의 이해도, 운영주체, 특화상품, 사업운영, 홍보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촌특화지원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4회에 걸쳐 현장전문가 지원 및 운영실태 관리를 시도하였다.

〈표 2-18〉 2018년 1차 시범사업 모니터링 내용

구분		내 용
문 제 점	사업이해도	어촌 6차산업화에 대한 마을리더·주민들의 이해도가 낮음, 단순 종합 개발사업의 성격으로 숙원사업 등 진행
	운영주체	찾은 마을리더의 교체로 인한 운영 주체 구성 미비, 일정기간 시설 운영 방치, 조직 구성 완비 후 진행 예정
	특화상품	기본계획 수립 시 특화상품에 대해 일부 마을에서 생산량 감소, 가공의 애로사항, 레시피 단가 문제로 생산·판매 실적 저조
	사업운영	어촌체험마을, 정보화 마을 등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중복 운영으로 성과관리의 체계성 부족
	홍 보	본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단순하여 특화상품·마을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음(일부 마을 홈페이지 운영)
↓		
개 선 사 항	현장전문가 지원	마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사업의 이해도, 운영주체 구성, 특화상품·마을 홍보 등
	운영실태 관리	마을별 실태관리를 어촌개발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시 반영·관리

자료: 어촌개발지원단(2019a)를 참고하여 저자가 재작성

2차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은 2018년 시·군의 사업담당자 면담을 통해 마을을 점검하였고, 사업추진사항 및 민원 등 집행부진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표 2-19〉 2018년 2차 시범사업 모니터링 내용

시·군	마을	점검 내용
전북 고창	두어마을	• 2018년 12월 시설공사 준공으로 내년부터 사업운영 실시 예정 • 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 철저
전남 고흥	신평마을	• 2018년 12월 시설공사 착수하여 2019년 공사 완료 예정 (부지 및 소득법인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사업지연) • 준공 전 시험가동 운영, 전남특화지원센터 사후관리 지원 필요
충남 서산	중앙마을	• 2018년 12월 시설공사 착수하여 2019년 공사 완료 예정 (용역업체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 준공 전·후 대상마을, 관계기관 유기적 업무관계 구축 필요
경남 거제	계도마을	• 2018년 12월 시설공사 착수하여 2019년 6월 공사 완료 예정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수행업체 선정 지연) • 사업공기가 짧아 수시 점검으로 부실시공 예방 필요
경남 남해	전도마을	• 2019년 4월 시설공사 착수하여 2019년 공사 완료 예정 (부지 용도변경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 신속한 부지용도변경으로 시설사업 조기 착수 및 준공 필요

자료: 어촌개발지원단(2019a)

2019년부터 시도별 어촌특화지원센터 시범사업 관리카드를 만들어 사업지별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각 사업별로 성과지표를 만들었다. 하지만, 모니터링하고 있는 지표는 매출액, 지출액, 방문객수, 생산량, 순이익, 일자리 등으로 한정하고, 마을별로 기초자료를 받아서 취합하고 있다.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 〈표 2-20〉과 같다.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위해 성과지표(안)를 마련하였지만,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는 대부분 사업지별로 매출액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마을 방문자 수 및 일자리 수는 일부 사업지에서만 모니터링하고 있다.

〈표 2-20〉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시범사업 모니터링 내용

대상마을	성과지표(안)	시범사업 모니터링
충남 태안 대야도마을	• 특화자원 생산량, 자원조달량 • 가공품종류 및 생산량 • 방문이용객 및 이용금액 • 특화상품 판매량 및 판매금액 • 일자리 수 및 총매출, 총지출 등	• 가공시설 매출액, 지출액, 방문자 수, 순이익 • 로컬푸드 음식점 매출액, 지출액, 방문자수, 순이익
전남 여수 안포마을	• 특화자원 생산량 • 로컬푸드 판매량, 판매금액 • 원물 직거래량 및 직거래 금액 • 한옥시설 이용객 수, 매출액 • 일자리 수 및 총매출, 총지출 등	• 총매출액
전남 해남 송호중리 마을	• 참여주민 수 및 가공제품 수 • 원물, 식당, 가공품의 각각 생산량 및 판매금액 • 방문객수 및 매출금액 • 일자리 수 및 총매출, 총지출 등	• 원물, 식당 판매금액 및 일자리 수
경남 거제 해금강마을	• 동백기름 생산량 및 생산금액 • 가공제품 개발건수, 지식재산권 • 방문객수 및 유람선 이용객수 • 동백상품 판매량 및 판매금액 • 일자리 수 및 총매출, 총지출 등	• 동백오일 매출금액
전북 고창 두어마을	• 특화자원 생산량, 자원조달량 • 가공품 종류 및 생산량 • 체험시설 이용객 및 이용금액 • 상품 판매량 및 판매금액 • 일자리 수 및 총매출, 총지출 등	• 가공식품 매출금액 및 지출액 • 체험식당 매출금액 및 지출액 • 열린카페 매출금액 및 지출액
충남 서산 중앙마을	• 특화자원 생산량, 자원조달량 • 가공품 생산량 및 생산금액 • 가공품 판매량 및 판매금액 • 방문객 수 및 이용금액 • 일자리 수 및 총매출, 총지출 등	• 매출금액
전남 고흥 신평마을	• 특화자원 생산량 • 가공품 개수 및 가공식품 생산량 • 가공품 판매량 및 판매금액 • 일자리 수 및 총매출, 총지출 등	-

대상마을	성과지표(안)	시범사업 모니터링
경남 거제 계도마을	•가공품 종류 및 생산량 •가공품 판매량 및 판매금액 •일자리 수 및 특화상품 개발 수	-
경남 남해 전도마을	•특화자원 생산량 및 자원조달량 •가공제품 개발 건수 •방문객수 •상품 판매량 및 판매금액 •일자리 수 및 총매출, 총지출 등	-

자료: 어촌개발지원단(2019a)

제3절 시범사업 추진실태 및 한계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실태 및 한계는 크게 세 가지 단계에서 체크할 수 있고, 시범사업 대상마을 모니터링에 대한 한계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시범사업은 준비단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시범사업 대상마을은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사전에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어촌 6차산업화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시범사업 이전에 특화상품 개발, 특화자원의 생산량 확보, 특화상품 판로 등에 대한 구체화하는 과정이 미흡해 기본계획 승인 후 사업에 대한 진행이 순조롭지 못했다. 이것은 준비단계의 모니터링에서 체크되지 못한 점에서 기인한다. 준비단계에서 시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마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수행능력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진행단계에서는 사업대상마을의

토지이용변경, 부지확보, 자원변경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원활한 사업진행이 어려웠다. 특히, 사업의 지연 원인으로 마을대표의 변경, 사업부지의 변경, 특화자원의 변경 등이 있었고, 마을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해남 송호·중리마을과 거제 계도마을은 사업진행 중 마을대표가 변경되면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고, 남해 전도마을은 토지용도에 문제가 있어 용도변경을 하는데 인·허가 행정 절차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지만, 일부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사업진행 중 역량강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업진행 중 모니터링은 사업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니터링 항목을 만들어 체크해야하지만, 사업 완료시점에 성과지표가 만들어져 사업진행 과정에서 실적과 사업 이후의 실적을 비교하는 데 한계가 나타났다. 게다가, 개별 사업지의 사업실적도 직접적인 조사가 아닌 대상마을에서 제출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완료단계에서 한계점을 보면, 시범사업 대상마을은 사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사업방식에서 한계가 나타났다. 거제 계도마을의 경우 사업완료 후 특화상품의 판매대상, 판매장소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수 안포마을의 경우, 특화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주변 전문기업이 유사한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특화자원에 대한 우위를 잃었다. 사업이 완료된 단계에서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안테나숍 등의 운영을 통해 특화상품에 대한 지원을 하였지만, 마을에서 가공된 특화상품의 판매 목표를 정하기 어려워 일반 식품박람회 등에 참가하

여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한,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성과지표(안) 기준으로 시범사업별로 특화자원 생산량, 생산금액, 가공품 개발수, 가공상품 생산량, 가공상품 판매금액, 이용·방문객 수, 일자리 수, 총매출액, 총지출액, 이익 및 잉여금 등 자세한 시범사업 모니터링 항목을 마련하였지만, 실제 모니터링은 총매출액, 일자리 수, 방문객 수만 수행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총매출액, 일자리 수, 방문객 수 등은 마을별로 월별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치는 한계점을 보여주었다.

〈표 2-21〉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의 추진실태 및 한계

구분	시범사업 대상마을	모니터링 문제점
준비단계	• 특화상품 개발 인지부족 • 사업내용 구체성 부족 • 사업대상지 인허가	• 역량강화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 체크 미비 • 특화상품 등 개발 미비
진행단계	• 특화상품 변경, 토지이용 변경 등 다양한 변수에 대응 부족 • 시범사업을 위한 전문교육 등의 준비부족	⇒ • 사업진행 및 컨설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미확인 •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데이터 수집 부족 (비교대상이 없음) • 마을에 대한 직접적인 모니터링이 아닌 데이터 수집 한계
완료단계	• 사업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 체계적인 사업방식 미비	• 성과지표에 관한 모니터링이 미수행 • 총매출, 일자리 수, 방문객 수만 모니터링

자료: 저자 작성

제 3 장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운영실적

제1절 어촌 6차산업화 운영실적

1. 실적 개요

어촌 6차산업화 실적 분석은 1~2차 시범사업 대상마을 9개 중 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량자료 구득의 한계에 따라 1차 시범사업이 추진된 4개 마을 중 해금강마을, 대야도마을, 안포마을(총 3개)과 2차 시범사업 5개 마을 중 계도마을 및 전도마을(총 2개)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¹²⁾

공통 실적지표로는 매출액, 순이익, 방문객 수를 집계·비교하였으며, 마을별 실적지표로는 사업활동별 매출·지출·순이익 등 연월별 실적을 활용하였다. 마을별 실적지표는 가용자료를 고려하여 1차 시범

12) 1~2차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이 진행된 10개 마을의 어촌특화지원센터 및 각 마을 사무국에 문의 결과, 인력 및 역량의 제약으로 체계적인 양적 자료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매출, 순이익, 방문객 등 최소한의 실적지표를 확인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실적분석을 진행하였다.

사업이 진행된 대야도마을과 안포마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최근 3년간(2017~2019년) 사업 매출은 여수 안포마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포마을의 연평균증감률(CAGR)은 -3.3%로 해금강마을(20.9%)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안포마을의 주요 사업매출이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동절기에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019년 자료가 9월까지만 확보 가능한 관계로, 10~12월 매출이 전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2019년 연매출 추정치는 7억 7,462만 원 수준으로 여전히 5개 분석대상 마을 중 가장 높은 값을 가진다.

해금강마을 6차산업화 매출의 연평균증감률은 20.9%로 5개 마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활동 다각화와 함께, 해금강 유람선이 연결되는 거제 외도 보타니아 방문객 증가 등이 결부되어 나타난 사업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금강마을의 방문객 수 미집계, 구체적인 사업활동별 매출 및 활동내역 미산출 등으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야도마을과 계도마을의 경우, 한해 매출이 모두 집계된 2018년 기준 각 1억 1,432만 원과 3억 7,573만 원의 6차산업화 매출을 올렸다. 대야도마을은 가을·겨울에 집중된 갯벌체험객의 증가로 당초 낮은 수준의 매출액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도마을은 낚시객의 방문이 많은 지역으로, 사업초기부터 연 3.6억 원 이상의 높은 6차산업화 매출을 기록했으나 연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도마을의 2019년 1~9월 사업매출은 2018년 한 해 매출 대비 9.57배 증가하였다. 물론, 2개년도 자료만으로 실적 증가분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멸치액젓 가공공장 현대화를 통한 가공상품 판매 확대와 쏙잡이, 조개잡이 등 갯벌체험객 증가가 2019년 매출액 급증의 요인으로 해석된다.

〈표 3-1〉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매출액

단위: 천 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감률
1차	대야도마을	-	-	84,490	114,318	65,838	-11.7%
	안포마을	-	-	434,193	884,916	405,819	-3.3%
	해금강마을	47,852	63,804	85,077	82,878	102,193	20.9%
2차	계도마을	-	-	362,251	375,730	240,093	-18.6%
	전도마을	-	-	-	9,551	101,014	-

주: 2019년은 9월 기준, 2019년 자료가 불완전한 관계로 연평균 증감률은 5년 이상 자료가 확보된 해금강마을만을 대상으로 해석

자료: 경남, 전남, 충남 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실적 보고 내부자료(구득일: 2019. 12. 10) 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으로 순이익이 확인가능한 마을은 대야도마을과 전도마을로 제한된다. 6차산업화 시범사업으로 인한 대야도마을의 순이익은 2018년 4,448만 원이며, 순이익이 집계된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의 누적 순이익은 1억 416만 원 수준이다. 전도마을은 2018년부터 1억 9,700만 원의 비교적 높은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1차 시범마을은 2년간 10억 원이 교부되었고, 2차 시범마을에 3년간 15억 원이 교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야도마을은 추가적인 비용 투입이 없다는 전제하에 사업비로 조성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최소 6년 5개월 이상 2018년 수준의 사업활동을 유지해야 사업비를 상회하는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과 2019년에는 2018년에 미치지 못하는 순이익을 달성하였으므로, 효과적인 사업비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 4년 이상 2018년과 같은 사업실적을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역량강화, 사업활동에서 파생된 부수적인 활동 등 간접적인 사업효과가 더해진다면 사업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¹³⁾

〈표 3-2〉 여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순이익

단위: 천 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1차	대야도마을	-	-	34,450	44,476	25,238
	안포마을	-	-	-	-	-
	해금강마을	-	-	-	-	-
2차	계도마을	-	-	-	-	-
	전도마을	-	-	-	5,700	14,000

주: 2019년은 9월 기준, '-' 표시 자료는 확인 불가

자료: 경남, 전남, 충남 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실적 보고 내부자료(구독일: 2019. 12. 10) 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시범마을 방문객 현황은 대야도마을을 포함하여 2차 시범사업 마을 중 계도마을, 전도마을을 대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2019년 대야도마을 자료는 집계력이 좋은 10~12월 자료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계도마을 또한 방문객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쪽·조개잡이, 멸치

〈표 3-3〉 여촌 6차산업화 시범마을 방문객 수

단위: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1차	대야도마을	-	-	1,320	1,740	2,060
	안포마을	-	-	-	-	-
	해금강마을	-	-	-	-	-
2차	계도마을	-	-	39,893	34,973	40,294
	전도마을	-	-	-	7,976	5,096

주: 2019년은 9월 기준, '-' 표시 자료는 확인 불가

자료: 경남, 전남, 충남 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실적 보고 내부자료(구독일: 2019. 12. 10) 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3) 당초 사업착수 단계에서 계획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바, 실적 분석을 넘어 성과 및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액젓 관련 사업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전도마을은 2018년 대비 2019년의 방문객 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마을별 운영 현황 및 실적

1) 태안 대야도마을

태안반도 남단 천수만에 접하고 있는 대야도마을의 6차산업화 활동은 갯벌체험과 독살체험을 포함하여, 우럭 손질 및 가공·판매, 음식점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무국에서는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6차산업화 사업활동을 소개하고 있으며,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내 여덟 곳의 숙박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1〉 대야도마을 체험 프로그램



자료: 대야도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검색일: 2019. 12. 10)

〈그림 3-2〉 대야도마을 주요 숙박업체



자료: 대야도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검색일: 2019. 12. 10)

체험활동 외 우력 가공 및 판매와 음식점 운영에 따른 매출·순이익 현황은 〈표 3-4〉와 같다. 순이익은 음식점 운영보다는 우력 가공 항목에서 평균 6.1배 높게 나타났다. 1년 총액이 확인 가능한 2018년 자료에서는 우력 가공 항목의 순이익이 3,728만 원, 음식점 운영의 순이익은 -4,62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대야도마을에서는 방문객 수 증감의 영향을 받는 음식점 운영보다는 주요 어종을 가공한 부가가치 증대 활동이 보다 안정적인 수익활동으로 보인다.

〈표 3-4〉 대야도마을 사업활동별 순이익 현황(일부)

단위: 천 원

구분	매출액			지출액			순이익		
	우력 가공	음식점	소계	우력 가공	음식점	소계	우력 가공	음식점	소계
2017	75,290	9,200	84,490	50,440	4,000	54,440	24,850	5,200	30,050
2018	112,938	1,380	114,318	75,660	6,000	81,660	37,278	-4,620	32,658
2019	57,938	7,900	65,838	45,653	3,950	49,603	12,285	3,950	16,235

주: 2019년은 9월 기준, 센터에서 제공한 자료의 순이익 계산결과에 오류가 있어 (순이익)=(매출액)-(지출액)으로 재계산

자료: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2019)(구득일: 2019. 12. 10)

〈그림 3-3〉 대야도마을의 우럭 가공상품 및 직판장



자료: 어촌개발지원단(2019b), p. 1

2) 여수 안포마을

〈그림 3-4〉 안포마을 체험 프로그램 및 특산물 판매



자료: (좌상)(좌우)(하좌)(하우)안포 어촌6차산업화 마을 홈페이지(검색일: 2019. 12. 10)

안포마을의 시범사업은 마을주민들과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바지락캐기 등 갯벌체험과 한옥체험, 피조개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공상품으로는 피조개, 새조개 등 지역 갯벌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안포마을은 전남어촌지원센터 및 완도해양바이오센터 등과 함께 전복과 조개류를 분말형태로 만든 상품을 신규 개발·상품화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표 3-5〉 안포마을 6차산업화 특화상품 시장진출 보도자료

어촌특화상품 친환경 식품시장 첫 진출
- 전복·조개 분말 어촌특화상품, 자연드림 전국 매장에서 만난다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조개류 가공식품 2종이 친환경 식품시장에 첫 진출하여 오는 29일부터 아이쿱 생협이 운영하고 있는 ‘자연드림’ 매장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자연드림에 입점하게 된 조개류 가공식품은 해남 송호마을의 전복 분말과 여수 안포마을의 조개 분말 제품으로 어촌마을에서 생산된 원물을 활용하여 지역업체에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이다.

송호마을과 안포마을은 지난 2014년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마을의 주 생산물인 조개류를 활용한 6차산업화를 추진하였으나 주민들만의 힘으로는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생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어촌특화산업 전담지원기구인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자문기관(완도해양바이오센터) 등이 연계하여 분말형태의 특화상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하 생략)

생산 협약식 현장	안포마을 조개분말 가공상품(샘플)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검색일: 2019. 12. 10)

안포마을의 6차산업화 시범사업의 일자리 창출 실적은 체험행사 당일 일용직을 포함하여 2017년 240명, 2018년에는 60명 증가한 300명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한 특화상품으로는 앞서 제시한 조개분말을 포함하여 2017~2018년 총 5건을 개발하였다. 안포마을도 대야도마을과 유사하게 음식점 매출보다는 원물 직거래 또는 가공상품 개발로 인한 매출규모가 더 크게 나타났다.

〈표 3-6〉 안포마을 사업활동별 실적 현황

구 분	사업 실적	2017	2018
1차산업	선별 및 세척	550톤	650톤
2차산업	로컬푸드 식당 매출	8,000천 원	12,000천 원
	원물 직거래 매출	345,600천 원	407,800천 원
	가공 제품 개수	1건	4건
3차산업	한옥체험 시설 이용객	1,021명	1,554명
6차산업	일자리 창출	240명	300명
	총매출액	432,096천 원	509,760천 원
	특화상품 개발	1건	4건

주: 6차산업 총매출액은 표에 제시된 활동의 매출만을 포함, 안포마을에서 제철한 연간 사업관리카드 (실적보고서)의 매출액과 상이

자료: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2019)(구득일: 2019. 12. 10)

6차산업화 활동의 월별 매출은 안포마을 특산품이 제철을 맞는 동절기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그림 3-5〉를 보면 11~3월에 매출이 몰리는데, 이는 피조개와 새조개의 원물, 가공상품, 관련 체험활동 등이 동절기에 가장 활발하기 때문이다. 향후 6차산업화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해서는 가공상품 판로 확대와 하절기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연중 관련 소득을 창출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3-7〉 안포마을 연월별 매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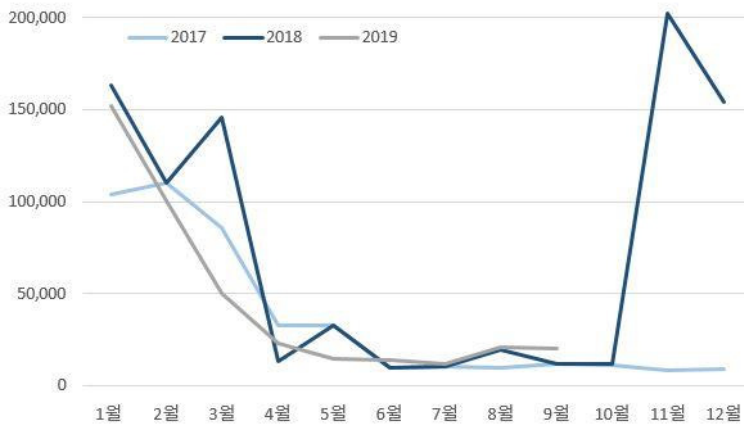
단위: 천 원

구 분	2017	2018	2019
1월	103,604	163,604	152,185
2월	110,331	110,331	100,331
3월	85,880	145,880	50,000
4월	33,000	13,000	23,000
5월	32,354	32,354	14,354
6월	9,500	9,500	13,500
7월	10,100	10,100	12,101
8월	9,547	19,547	20,548
9월	11,800	11,800	19,800
10월	11,200	12,000	(미집계)
11월	7,945	202,300	(미집계)
12월	8,932	154,500	(미집계)
매출합계	434,193	884,916	405,819

자료: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2019)(구득일: 2019. 12. 10)

〈그림 3-5〉 안포마을의 연월별 매출 추이

단위: 천 원



자료: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2019)(구득일: 2019. 12. 10)

3) 거제 해금강마을

해금강마을은 주요 사업활동으로 돌미역, 톳 등 해조류 생산·가공과 동백제품 가공, 유람선 관광과 연계한 동백군락지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특화 융·복합공간과 해양경관 탐방로, 힐링 문화공간 조성 등 체험·관광형 사업 추진에 주요 사업비를 투자하였다.

〈그림 3-6〉 해금강마을 시범사업 현황



자료: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2019)(구득일: 2019. 12. 10)

시설 정비·조성을 중심으로 한 사업비는 8억 1,600만 원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2015~2019년 해금강마을 6차산업화 매출 총계인 3억 8,180만 원보다 약 4억 2,420만 원 높다. 그러나 2019년과 유사한 추이로 매출 증가를 가정할 경우, 2024년 4월 이후 사업비보다 높은 매출액 달성이 기대된다.

〈표 3-8〉 해금강마을 6차산업화 사업비

단위: 천 원

구분	사업 내용	사업비
1차산업	동백군락지 정비사업	22,000
2차산업	지역특화 융·복합공간 조성사업	280,000
3차산업	해양경관 탐방로 조성사업	386,000
	힐링 문화공간 조성사업	128,000

자료: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2019)(구득일: 2019. 12. 10)

4) 거제 계도마을

어촌 6차산업화 2차 공모사업(2016~2018년)으로 추진된 계도마을의 시범사업은 대구 생산·가공과 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 활동을 중심으로 하였다. 계도마을은 시범사업 이전부터 바다낚시, 섬 생태탐방, 해수욕을 비롯하여 정치망어업 및 미더덕 가공 체험 등 관광·체험활동이 활발하던 지역으로, 사업추진 단계에서도 해당 인프라를 활용하여 최근 3년간(2017~2019년) 9억 7,807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그림 3-7〉 거제 계도마을 낚시 체험 현황



자료: 계도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검색일: 2019. 12. 10)

계도마을은 기존의 관광·체험활동에 더해 대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진행하고자 12억 6,900만 원의 총 사업비를 들여 가공·판매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년과 같은 매출 달성이 지속된다면, 2021년부터 사업비 대비 매출이 높은 시범사업 마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매출액 외 사업비 대비 소득증대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관리에 근거한 사업활동별 수익 및 순수익 자료 보강, 시범사업 참여 가구의 소득변화 관리가 필수적이다.

〈표 3-9〉 계도마을 사업비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사업 내용	사업비
2차산업	가공작업장 확충 및 가공설비 조성	1,047,000
	수산물 저장시설조성	70,000
	해썹(HACCP)인증	30,000
3차산업	특산물 판매장 조성	60,000
	체험 및 축제 프로그램 운영	62,000

자료: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2019)(구득일: 2019. 12. 10)

5) 남해 전도마을

전도마을은 파래·죽방멸치 등 원물 판매에 제한되던 소득구조를 개선하고자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어촌마을'을 슬로건으로 6차산업화 2차 공모사업(2016~2018년)에 참여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멸치액젓 가공공장 현대화, 저온저장고 건립과 더불어 지역의 매력도 개선과 방문객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관정비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3-8〉 전도마을 어촌 6차산업화 개요



자료: 어촌개발지원단(2019c), p. 2

특화상품으로는 만능어간장과 멸치액젓 가공상품을 개발하였으며, 자체적인 6차산업화 홈페이지와 마을 내 6차산업관을 통해 홍보·판매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죽방렴 멸치잡이, 갯벌 쏙잡이와 바지락·우럭조개 채취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병행 중이다.

〈그림 3-9〉 전도마을 6차산업화 특화상품



자료: 전도마을 어촌 6차산업화 홈페이지(검색일: 2019. 12. 10)

전도마을은 연꽃밭 조성을 비롯하여 가공공장 및 보관창고 건립 등으로 총 1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전도마을의 매출 총계는 2018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하여 예상 매출규모 추정 및 수익 분석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2018년 일부 집계된 매출이 955만 원인 반면, 2019년 1~9월 매출은 1억 104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사업활동 정착·확대에 따른 유의미한 소득제고가 기대된다.

〈표 3-10〉 전도마을 사업비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사업 내용	사업비
1차산업	연꽃밭 신축	150,000
2차산업	멸치액젓 가공공장 현대화	100,000
	저온 저장고 및 물품 보관창고 건립	30,000
	전도 창조 산업관	700,000
3차산업	방문객 유도체계 개선 사업	30,000
	마을진입로 경관조성 사업	100,000

자료: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2019)(구득일: 2019. 12. 10)

제2절 운영실적 점검

1. 어촌 6차산업화 마을별 운영 점검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대상마을 중 5개의 마을의 운영실적을 분석하면, 다음 〈표 3-11〉과 같다.

거제 해금강마을은 외도 보타니아 방문객을 중심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다각화를 통해 연매출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마을방문객을 따로 집계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수요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표소 위치변경, 교육장 마련 등 유람선사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태안 대야도마을은 갯벌체험객 및 낚시체험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으며, 음식점 운영보다는 건우력 가공상품의

수익이 높아 특화상품 개발 판매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야도마을은 특화상품의 다각화 및 판로를 확대하여 체험객뿐만 아니라 펜션 등을 통해 주변관광지 방문객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 안포마을은 원물생산 판매로 높은 매출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가공상품 판매보다는 원물 직거래 사업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의 생산량 변동이 크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상품 개발 등에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역 상생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가공상품의 생산량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 3-11〉 어촌 6차산업화 운영실적 분석을 통한 시사점

어촌마을	운영실적 분석	사업확대 방향
거제 해금강 마을	• 사업의 다각화 및 보타니아 방문객 증가로 연평균매출 증가 20.9%	• 외도 방문객이사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유람선사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업 확대
태안 대야도 마을	• 갯벌체험마을 매출액 지속적 증가 • 투자사업비 회수에 6년 5개월(10억 원) • 체험객 지속증가 추세 • 음식점 운영보다 상품판매의 수익이 높음	• 가공제품의 다각화를 통한 판로확대 필요 - 체험객, 펜션 등
여수 안포마을	• 원물 생산 판매로 높은 매출규모를 보임 • 원물 직거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지역 상생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
거제 계도마을	• 낚시객 수요 증가로 매출액 증가 • 낚시객 지속적 증가	• 낚시수요에 맞는 상품 개발 필요
남해 전도마을	• 가공공장 현대화 및 갯벌체험으로 매출액 증가 • 체험관광객 감소	• 상품개발 및 다각화를 통한 판로확대 필요

자료: 저자 작성

거제 계도마을은 현재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낚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높은 매출수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낚시 이용객에 맞는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남해 전도마을은 갯벌 체험객에게 특화상품의 판매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화상품 개발의 다각화를 통한 수익창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한계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9개소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함으로써 본 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한계점은 어촌주민 역량부족, 어촌 6차산업화 대표자원 발굴 미흡, 사업 추진 한계, 사업추진과정 점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어촌주민의 역량부족

어촌 6차산업화는 어촌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토대로 6차산업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촌 6차산업화의 이해, 자원이용, 사업구상, 조직정비, 사업계획서 작성 등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1~2명의 소수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초교육, 심화교육을 거치고 있지만,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점이 많다. 이에 어촌주민의 역량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어촌지역에 함께 들어가 주기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리빙랩 방식의 컨설팅이 필요하다. 리빙랩 방식의 지역컨설팅은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역전문가, 행정, 민간인, 귀어귀촌인 등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주민이 해결하지 못하는 역량을 제고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 방식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마을이 일정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장기간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지역자원 발굴의 미흡

대부분의 어촌마을은 지역의 자원 중 부가가치보다는 지역자원의 브랜드를 통해 원물의 가격을 높여 생물로 유통 및 판매하는 것을 선호한다. 9개 시범마을 중 여수 안포마을, 해남 송호·중리마을, 남해 전도마을, 고흥 신평마을, 거제 계도마을, 고창 두어마을은 6차산업화 특화자원을 지역의 대표생산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거제 계도마을, 여수 안포마을, 고창 두어마을, 해남 송호·중리마을 4개의 마을은 현재 특화자원 선정과 전략상품 개발의 실패하여 사업운영에 차질을 보이고 있다. 고창 두어마을과 해남 송호·중리마을은 높은 가격의 수산물を 가지고 장어즙, 전복빵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높은 단가의 수산물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 두어마을은 민물장어의 버려지는 부분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상품개발 등이 필요하고, 해남 송호·중리마을은 전복 패각을 틀로 활용한 전복패각 빵 등의 사업전향이 필요하다. 어촌 6차산업

화의 성공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자원을 발굴하여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3) 사업추진의 한계

어촌 6차산업화 시범마을은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첫째, 대부분의 대상마을은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예비사업 계획서의 사업성뿐만 아니라 추진전략과 추진절차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자가 방향성을 잃거나 사업이 적기에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업자가 6차산업화를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이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외부 기관에 의존해 사업계획서가 작성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시범마을로 선정된 9개 마을은 기초인프라가 부족해 10~15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셋째, 6차산업화의 예산 집행은 해당 지자체에서 이루어져 마을과 협의과정, 행정절차 등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어촌자원을 활용하여 상품개발, 판로확보 및 시장개척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3년 사업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상품개발 시 필요한 경우 R&D를 통해 상품이 개발되고, 상품이 개발되더라도 실제 판로확보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점이 나타났다. 거제 해금강마을의 경우 동백오일의 냉압착 추출기술, 동백기름을 활용한 화장품 생산기술 확보 등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기술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 중왕마을의 경우 감태를 생산하여 조미감태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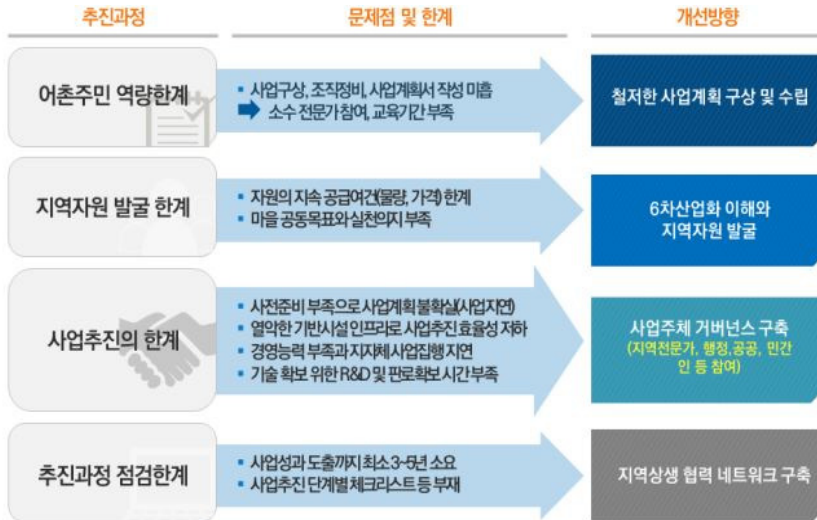
으로 생산을 하는데 2년의 기술개발을 하였고, 지역판로를 구축하는데 또 2년이 소요되었다.¹⁴⁾ 이런 점을 볼 때, 생산자가 상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모색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사업추진과정의 점검 부실

어촌 6차산업화 시범마을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3년의 사업 기간이 주어졌다. 6차산업화 특성상 사업운영 및 성과는 사업 완료 시점보다는 최소 상품이 정착되어 판매되는 3~5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그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대야도마을의 운영실적을 보면, 사업투자비를 회수하는 시점을 6~7년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추진과정을 점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6차산업화 사업이 집행될 수 있게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2차 시범사업은 2016년 선정되어 2018년에 완료가 되어야 하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고, 2019년 9월에 2개소가 완료되었으며, 3개소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사업조성 시간을 단축하고, 사업운영을 조기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꾸준한 점검 관리가 필요하다.

14) 서산시(2016), p. 16.

〈그림 3-10〉 어촌 6차산업화 한계 및 개선방향 도출



자료: 저자 작성

제 4 장

어촌 6차산업화 개선방안

제1절 어촌 6차산업화 개선방향 도출

1. 리빙랩을 통한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

어촌 6차산업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사전준비는 지역전문가와 주민, 행정기관이 함께 어촌지역의 목표와 비전을 만들고, 어촌자원과 소비자 니즈를 연계한 상품과 서비스, 스토리를 만들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리빙랩 방식의 준비가 필요하다. 사전준비는 어촌 6차산업화를 통해 어촌지역만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소비자 니즈에 적절히 대응하고, 어촌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어촌 6차산업화 사업화과정은 우선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어촌 6차산업화 사전계획은

첫째, 마을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에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구성원 간 역할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계획은 지역의 유희자원을 포함한 특화자원에 대한 고찰과 지역 내외 협력 가능한 전문가, 공공, 연구원 등 인적 자원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셋째, 사전계획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회 트렌드를 반영하고, 인근지역의 제품과 서비스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자원의 발굴

어촌 6차산업화가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사업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요구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고, 타 지역과의 경쟁을 피하면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역자원의 발굴은 마을주민, 행정,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대학교, 연구소, 소비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어촌지역의 부존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자원의 발굴은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시켜 향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개발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3. 사업주체의 거버넌스

어촌 6차산업화는 수산물 생산에서 제품가공, 유통판매·서비스 등 사업영역 범위가 넓어 체계적인 조직구성이 중요하다. 마을의 어업

인, 어촌산업 종사자, 고령자, 여성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법인, 협동조합 등을 조직하고, 외연적으로 지역 유통전문가, 가공전문가, 공공행정,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어촌 6차산업화는 마을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고, 어촌 6차산업화를 지원하는 지자체 및 중간조직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중간조직은 어촌 6차산업화와 관련된 창업 및 경영지원, 연구개발 지원, 경영실태 관리 등의 중요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어촌 6차산업화 대상마을을 지원하고, 대상마을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유통 및 홍보 지원, 사업주체에 대한 교육·연수, 사업주체와 연구기관·대학·민간전문가와 연계지원, 어촌 6차산업화 마을 간 네트워크를 구축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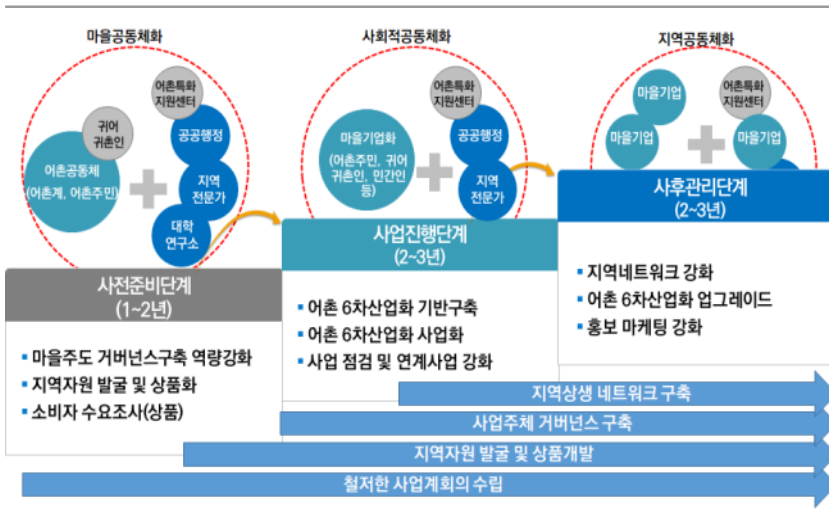
4. 지역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어촌 6차산업화는 지역 내 상생협력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어촌 6차산업화 사업주체는 주변지역 어촌과 협력 및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자원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1차·2차·3차 산업 관련 종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교류, 학습, 정책수요, 판로 등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촌 6차산업화에서 개발된 상품은 다양한 협력체계를 통해 판로가 확대되어야 하고, 어업인, 기업, 공공, 민간단체 등과 함께 소비자 니즈를 분석하고, 제품개발, 가공, 판매 등의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참여하는 사업주체들은 운영 및 경영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같이 고민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상생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2절 어촌 6차산업화 개선방안

어촌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사전준비단계에서 수산업을 기반으로 6차산업화를 통해 어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상품을 개발하여 어촌지역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어촌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가공-판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하여 관광 등의 연계산업이 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진행단계에서 마을주민은 사업 추진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고, 중앙부처 간 협업과 지자체 간의 협력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사후관리단계에서 중앙정부·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연계·강화하여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4-1〉 단계별 지원정책 방안



자료: 저자 작성

1. 사전준비단계

사전준비단계에 있는 마을은 6차산업화가 시작되기 전에 머물러 있는 마을로, 지역의 대표와 구성원은 무엇이든 추진하려는 의지가 매우 충만해 있기 때문에 리더와 구성원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역구성원은 6차산업화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단계이다. 6차산업화에 대한 사전준비로 마을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역량강화 사업내용이 지역특화에 맞지 않거나, 시장규모에 맞는지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 사업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참여 및 이해도 제고와 예비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어촌 6차산업화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서산 중왕마을은 어촌 6차산업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 역량강화를 통해 어촌 6차산업화 사업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이해도를 높였으며, 이를 통해 시장규모와 자원의 생산량을 확인하고, 감태라는 수산물의 상품을 주문 위탁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함으로써 6차산업화에 대한 사전준비가 충실하게 이루어진 사례이다. 따라서 어촌 6차산업화를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마을의 사전준비는 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와 상품화를 위한 구체화와 실행력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

1) 마을공동체 주도 거버넌스 구축 및 역량강화

어촌 6차산업화의 역량강화는 마을공동체 주도의 지역혁신체계 프로그램(리빙랩 방식)으로 이루어져 어촌 6차산업화를 주도하는 마을주민의 참여와 이해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어촌 6차산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

다. 기존의 마을공동사업은 체계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상호이해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상향식 지역개발이 어려운 구조였다. 따라서 공모사업 전 마을공동체가 지역에 필요한 활동 발굴 및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마을공동체의 의견이 반영된 참여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업대상 마을은 지자체, 대학·연구소,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지원센터 등과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어촌 6차산업화 준비를 위한 사업예산, 구상사업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가공 및 경영을 위한 기술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림 4-2〉 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리빙랩 방식의 거버넌스 구축



자료: 저자 작성

어촌 6차산업화 사전준비단계에서 역량강화는 자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지역네트워크 구축, 마을주민의 단계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어촌 6차산업화에 필요한 것은 자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이다.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대부분의 마을은 자원에 대한 정확한 생산량, 생산금액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전략상품 자원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실하였다. 여수 안포마을은 피조개를 활용하여 6차산업화를 시도하였지만, 피조개의 생산량이 크게 줄어 6차산업화에 한계를 보였다. 또한, 거제 계도마을의 경우 지역자원인 대구를 활용하여 6차산업화를 시도하였지만, 대구의 생산량이 안정적이지 못하여 전략상품으로 구입이 쉬운 넙치로 전환하였고, 대구를 활용한 지역특화에는 실패하였다. 따라서 사전준비단계에서 역량강화는 전략상품 자원에 대한 생산량, 생산금액 등의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어촌 6차산업화의 대표자원에 대한 지역네트워크 구축이다. 서산 중왕마을의 경우 가로림만의 16개 어촌과 감태를 활용하여 조미감태, 생감태, 물감태 등을 생산하였고, 중왕마을은 감태를 활용하여 조미감태를 전략상품으로 출시하였다. 중왕마을은 16개 어촌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감태를 조미감태라는 지역브랜드로 엮어 새로운 브랜드로 창출하였다. 사전준비단계에서 역량강화는 마을과 마을, 지역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6차산업화 전략상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상품개발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전준비단계에서 역량강화는 전략상품을 개발하는 핵심주체가 필요하고, 이러한 핵심주체의 성장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역량강화는 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목표로 단계별 기본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어촌 6차산업화는 수산업, 가공업, 유통·서비스업이 융·복합되어 연계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1차산업인 수산업과 2차 제조·가공, 3차의 유통·서비스·판매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어촌 6차산업화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사전단계에서 수산업 분야는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한 생산량 증대의 연구개발, 제조·가공 분야는 생산자원의 연구를 통한 시제품 개발 및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 설계, 유통·서비스·판매 분야는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등의 연구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대상마을들은 사전 역량강화를 통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지만,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마을자원발굴, 자원지도 만들기, 마을가꾸기 등의 기초교육을 통해 어촌특화 예비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교육을 받고 있어 사업진행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어촌6차산업화는 대상마을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전준비단계에서 단계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2) 지역자원 발굴과 상품화

어촌 6차산업화 사전준비단계는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특히 어촌 마을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지역자원의 연구개발, 시제품개발 등은 지역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전준비단계에서 리빙랩 방식의 지역혁신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전문가, 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원, 생산품의 품질 향상, 그리고 시제품의 개발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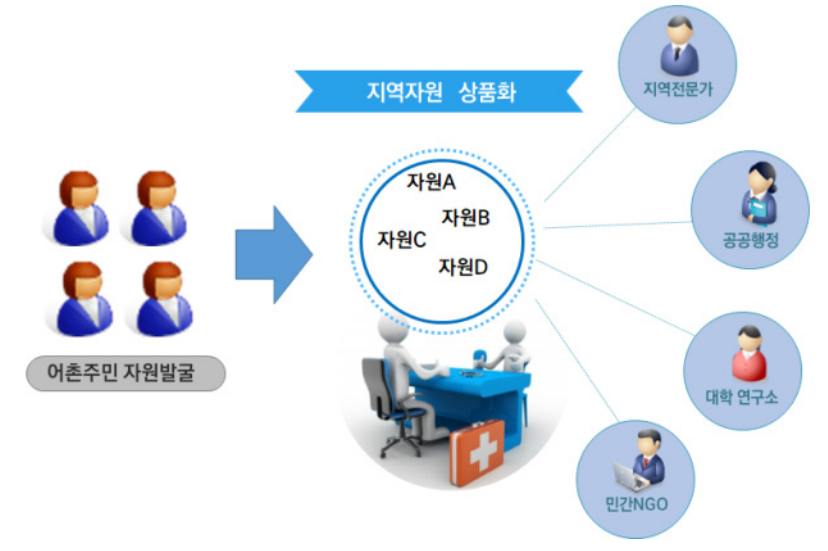
첫째, 사전준비단계는 특화자원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어촌주민은 지역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저차가공을 선택한다. 저차가공은 생산물을 쉽게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대표자원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하다. 따라서 연구활동이 가능한 지역전문가와 협업하여 지역자원을 전략적으로 상품화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어촌 6차산업화 사전준비단계는 원료의 원활한 공급과 품질 향상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수산물은 계절별로 생산량과 품질이 다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원료를 보관하는 시설과 품질을 지속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사전준비단계에서는 생물로 판매하는 수산자원과 가공원료가 되는 수산자원을 구분하고, 가공원료를 보관하는 시설과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가공원료는 건조, 냉동, 선어 등 이용형태에 따라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개발된 상품에 맞춰 원료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사전준비단계는 시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시제품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가공식품을 개발할 경우 팔리는 상품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6차산업화로 생산된 시제품은 슈퍼마켓, 시장, 대형유통업체, 편의점 등 전문식품업체에서 생산된 수많은 가공식품 가운데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되기 어렵다. 어업생산만 하던 마을주민 입장에서 소비자를 분석하고, 상품을 전략적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전준비단계는 공공기관, 대학, 전문가가 마을주민들과 함께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하여 전략적인 시제품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어촌 6차산업화 사전준비를 위한 지역혁신프로그램은 소비자 분석을 통해 시제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개발, 기술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다양한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4-3〉 사전준비단계의 연구개발 지원



자료: 저자 작성

3) 소비자 수요조사

사전준비단계에서 상품의 판매는 우선적으로 지역시장을 목표로 하며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 사업자는 지역을 방문하고, 지역의 먹거리를 즐기는 사람들의 소비패턴에 맞추어 시제품을 개발하고, 지역 내 소규모 시장에 우선적으로 판매한다. 사업자는 작은 규모의 시장이더라도 체계적인 판매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어촌 6차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지역 내 학교 급식, 군납, 호텔, 펜션, 음식점, 유통상인, 로컬푸드 매장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마을주민은 어촌 6차산업화 사전준비단계에서 역량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판매시스템을 지역에 시도하고, 지역의 호응을 살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업진행단계

어촌 6차산업화 사업진행단계에서 사업추진 대상마을은 사업계획을 더 세밀하게 계획해야 한다. 첫째, 사업주체는 필요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1차·2차·3차 산업단계별 구성원의 역할, 구성원별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등 어촌 6차산업화에 대한 세부적인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어촌 6차산업화 대상사업자는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 제품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시장개척을 위한 제품개발 등의 사업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셋째, 사업주체는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이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과 일치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기존의 사업들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1) 어촌 6차산업화 기반구축

어촌 6차산업화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원물확보 및 보관, 매력적인 상품생산, 가공시설규모 확보, 판매시설 및 서비스 규모, 유통채널 확보 등 사업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사업주체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상품생산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개발된 상품이 안정된 품질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생산과 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어촌 6차산업화 상품은 대부분 가공식품 형태의 상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품안전 등을 통해 보다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상품 원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체계가 구축되어야 지속가능하고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6차산업화 시설의 규모는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단계의 소

비자 분석을 통해 필요한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6차산업화 상품을 지역방문에 한정하여 유통·판매할 경우, 지역 내 방문자 규모에 맞는 판매시설과 가공시설을 계획하고 구축해야 한다. 반면, 지역상품을 대규모 유통망, 편의점 등을 통해 판매하려고 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맞는 시설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주체는 소비자에 맞는 제품생산뿐만 아니라 제품생산에 적절한 시설계획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촌 6차산업화를 사업주체가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단계별로 체계적인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사업대상 마을의 구성을 포함하여 생산자, 제조·가공업자, 유통판매자 등 명확한 조직 구성 체계가 필요하다.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수산물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원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대부분의 시범마을은 안정적인 원물공급보다는 어가가 좋을 시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하고 있어 충분한 원물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제품을 가공하는 데 있어 원물의 안정적인 공급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6차산업화를 실행하는 사업주체는 원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제조가공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가공업자는 원물을 받아 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해야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어업인은 주로 수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어, 제조가공 영역에서 새로운 인력을 유입하여 가공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 이외에도 유통·판매·서비스 분야도 어업인이 대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다. 체계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제조가공, 유통·판매·서비스 분야로 인력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어촌지역의 여성 및 고령자를 적극적으로 가공 및 유통판매 서비스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어촌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역량강화, 심화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지만, 마을주민의 체계적인 교육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어촌 6차산업화 대상마을은 조직구성에서 1차·2차·3차 산업단계별 구성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역량강화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심화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조직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구성원의 역할에 따른 교육커리큘럼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사업단계별 구성원이 역량이 부족할 경우, 새로운 인력을 유입시켜 사업단계별 역할을 소화할 필요가 있다.

2) 어촌 6차산업화 전문화·시스템화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전문화된 인력양성과 확보가 필요하고, 제품의 품질·유지관리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제품을 다각화해야 한다.

첫째, 어촌 6차산업화가 마을사업의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촌 6차산업화를 이끄는 전문화된 인력양성과 인력확보가 필요하다. 어촌 6차산업화는 사업대상마을의 위원장, 어촌계장 등의 리더가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촌 6차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각 사업별 담당자이다. 생산영역에서 생산자 또는 원료수급자는 협약을 통해 마을공동어장이나 개인양식어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가공시설 관리자, 가공업 종사자는 가공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6차산업화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 따라서, 가공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 역시 전문화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유통·판매·서비스 분야의 종사자는 생산된 6차산업화 제품을

전략적으로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유통·판매·서비스 분야의 종사자는 제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 서비스, 판매에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어촌 6차산업화가 정상궤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6차산업화 제품의 품질을 향상·유지시켜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다양한 소비자 니즈 등에 대응하는 안전관리인증(HACCP) 시설 확대와 상품 포장재 및 디자인을 개발하고, 안전하고 향상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여 매력적인 상품을 선보여야 한다. 6차산업화 상품은 안전관리인증(HACCP)을 통해 가공품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식품 위생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식품 안전성에 대한 주요 책임을 생산자에게 떨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상품에 대한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해 제품의 브랜드를 만들고, 홍보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유지해야 한다.

셋째,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6차산업화 상품을 더 세분화된 소비자 니즈에 맞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정간편식(HMR)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6차산업화에서 개발된 상품을 소비자 니즈에 맞게 1인식, 간편식으로 소포장하여 급식 등의 소규모 유통망부터 대형마트 등 대기업 유통망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3) 지속적인 사업점검 및 연계사업 강화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을 추진하는 어촌공동체는 자가진단 프로세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어

촌 6차산업화 자가진단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추진 시점 전·후의 사업 점검, 추진전략의 이행, 조직구성 및 정비 등을 진단하고, 사업화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어촌공동체 사업자는 현재 여건 속에서 기존에 6차산업화 계획과 일치 여부 등 필요한 전략과 취약점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도출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지원방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어촌 6차산업화 대상마을은 사업추진을 통해 지향 가치, 마케팅, 디자인 제품개발, 운영, 품질, 판매방식, 시장 등에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자가진단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진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림 4-4〉 어촌 6차산업화 자가진단 프로세스(안)



자료: 저자 작성

또한, 어촌 6차산업화 사업주체는 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기존사업들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체는 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공동체 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고, 단기간 사업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을 추진하는 어촌공동체는 필요한 영역이 분리되는 R&D 지원, 판로개척 지원, 마케팅/브랜드 지원, 금융 지원, 1차·2차·3차 산업부분에서 기존 수산어촌 지원사업과 연계사업 등 <표 4-1>과 같이 연계할 수 있다.

〈표 4-1〉 어촌 6차산업화 사업과 기타 지원사업과의 연계

구분		사업내용
기존 수산 어촌 지원사업		•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 • 해양관광 육성사업 •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
연계 사업	R&D 지원	• 수산물유통 기술개발 • 중소기업융합기술개발사업 •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판로개척 지원	• 해외판촉행사 지원 • 해외 안테나숍 운영 • 해외바이어 초청 식품소재 및 기능성 식품 수출 상담회 • 식품소재 및 기능성 식품기업 국제박람회 참가
	마케팅/ 브랜드 지원	• 서울수산식품전시회 • 부산국제수산물무역EXPO • 마케팅 이노베이션 • 홍보지원 • 구매상담회 • 싱싱장터 운영 • 직거래장터 개설 지원
	금융지원	• 귀어귀촌인 창업자금 융자 • 수산업경영인 육성

자료: 저자 작성

3. 사후관리단계

어촌 6차산업화 사후관리단계는 어촌 6차산업화의 기반구축이 마
련되어 사업이 운영되는 단계로 운영조직 지역네트워크 강화, 어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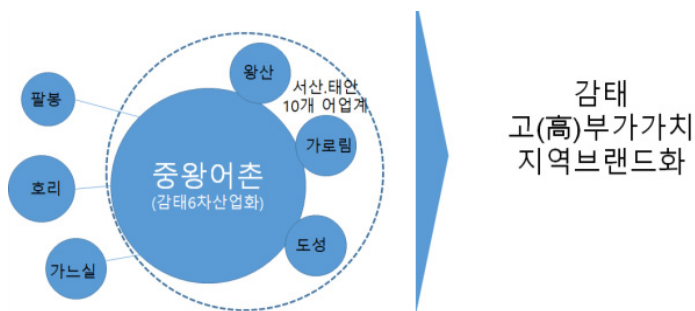
6차산업화 업그레이드, 홍보마케팅 강화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유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후관리단계는 어촌공동체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지역전체를 이끌어가는 지역공동체화를 목표로 한다.

1) 지역네트워크 강화

어촌 6차산업화의 사후관리단계에서 지역네트워크 강화는 마을기업 간의 협력시스템 구축, 지역을 이끄는 리더 양성, 1차·2차·3차 산업단계별 점검시스템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등이 있다.

첫째, 지역 내 어촌마을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 구축이다. 지역 내 6차산업을 시도하는 비슷한 어촌들의 경쟁으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이 어려워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어촌의 새로운 형태의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4-5〉 지역 내 어촌마을 간 협력시스템 구축사례(중왕마을)



자료: 저자 작성

둘째, 지역네트워크의 핵심주체는 사업을 이끌어가는 리더이기 때문에 지역 리더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내 리더 양성을 통해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혁신적인 역량을 다른 지역과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업자는 지역 내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이룬 리더들이 멘토가 되어 지역 내 다른 사업자들의 멘토로 활동하여 성공/실패 요인을 공유하고, 컨설팅을 하는 등 상호 협력·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전국 단위의 세미나, 포럼 등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어촌 6차산업화 사후관리단계에서는 단계별 사업의 점검시스템을 구체화하여 지역 내 어촌과 공유하여 지역재생을 도모해야 한다. 어촌 6차산업화 사업추진의 모니터링 및 점검은 자기진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출액, 생산금액, 일자리 창출 등의 객관적인 통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지역어촌과 공유함으로써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 내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사업대상마을 지역 내 점검사항은 계획한 사업의 목표달성여부, 사업성과, 사업성과의 지속적인 확산 여부 등을 공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지역재생에 앞장서야 한다.

2) 어촌 6차산업화 업그레이드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은 1차·2차·3차 산업의 융·복합 사업으로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단계별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가치창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따라서 어촌 6차산업화는 가공기술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상품품질 향상, 수요자에 맞는 개발 상품의 다각화, 지역경제의 이익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함

로써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첫째, 사업대상마을은 기존에 구축한 단계별 프로세스를 보다 체계적이고, 간소화하여 상품의 품질향상을 시도하여야 한다. 자원과 경제가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상품의 품질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학습활동과 네트워크 활동, 외국의 선진시스템 등의 도입을 통해 생산·가공·유통·판매 영역별 기술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6차산업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어촌 6차산업화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상품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상품은 좁은 지역 내에서 판매되고, 더 나아가 전국 유통망으로 판매가 되었다면, 각 지역별 성향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을 공략하고, 해외시장도 개척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프로그램보다는 새로운 시장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 업그레이드 단계에 맞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6차산업화 업그레이드는 밖으로는 6차산업화 상품의 개발과 다각화가 필요하고, 안으로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 6차산업화의 원동력은 자원과 사람이다. 지역주민의 인력과 새로운 인력유입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문화·복지·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귀어귀촌 등의 인력유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어촌 6차산업화는 어촌경제의 침체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지역균형과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하지만 2차례의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어촌마을의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는 사업성공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어촌 6차산업화는 시범사업의 정확한 진단과 정량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되지 못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이 완료된 후 체계적인 사업효과를 도출하여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을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기반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고, 어촌 6차산업화 추진실태, 어촌 6차산업화 운영실적 검토 및 마을 운영실태 비교·분석을 통해 어촌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기

여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촌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기존사업의 추진실태 분석을 통하여 어촌 6차산업화의 문제점 및 한계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어촌 6차산업화의 운영 매출, 일자리, 방문자 수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개선방안은 사전준비단계, 사업진행단계,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어촌 6차산업화는 사전단계에서 철저한 준비와 지역의 높은 역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주도과 지역혁신 기반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리빙랩 방식의 역량강화를 기초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추진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소외되어 있는 어촌지역의 다양성을 발현할 수 있는 탄력적인 지원사업 확대를 제안하였다.

제2절 정책제언

1.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어촌 6차산업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1차산업에서 생산의 효율화 및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1차산업에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어촌 6차산업화는 어업인 및 지역주민(공동체) 간 ① 6차산

업화(융·복합)사업과 관련된 사업 발굴, ② 발굴된 사업에 대한 제품(기술)개발, ③ 제품의 사업화, ④ 판로확대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체계화된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6차산업화 사업발굴단계에서는 어촌 6차산업화 전진대회 등을 통해 1차·2차·3차 사업에 대한 정보교류 등이 촉진되어 가시적으로 나타날 6차산업화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제품(기술)개발 단계는 어촌공동체 및 마을공동체에서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제품(기술)개발을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제품개발은 제품을 이용·구매할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개발될 수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단계는 어촌 6차산업화 본 사업 추진 및 6차산업화와 관련된 지역개발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차산업화 판로확대 단계에서는 국내외 식품·산업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공공기관 등을 통해 우선 소비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어촌 6차산업화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간조직 역할강화

어촌 6차산업화가 어촌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중간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¹⁵⁾에 따르면, 6차산업화 중간조직은 ① 실질적 현장성이 있어 마을에 직접 참여·관여, ② 지역 기관과의 협력체계, ③ 중앙단위, 시·도 단위, 시·군 단위 3단계 조직형태, ④ 어업인 등 행정서비스 및 계획서 수립 등 서비스 제공, ⑤ 맞

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pp. 127~131

출형 교육 및 컨설팅 가능, ⑥ 관료화 방지 제도, ⑦ 중간조직에 대한 철저한 사후 평가, ⑧ 조직규모가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출발, ⑨ 중간단위 전문가 풀 제공 및 전문가 교육이 가능한 조직이 필요하다.

어촌 6차산업화를 성공 및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촌6차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중간조직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중간조직인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중앙단위 중간조직과 시도 단위 중간조직이 서로 얹혀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시도에 관할하는 어촌이 많으며, 시도 행정의 업무가 많아 직접적으로 시범사업 어촌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간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간조직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중간조직을 평가하는 중앙의 전담기관과 중간조직 간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연관이 없는 다른 기관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3. 어촌 6차산업화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어촌 6차산업화의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사업이 승인된 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업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먼저 사업관리에 있어 사업계획단계에서 모니터링과 사업실행단계의 모니터링, 사업완료단계의 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사업계획단계에서는 6차산업화 정책목표의 정합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 검토, 지방비, 자부담 확보 여부 등의 행

정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사업실행단계에서는 사업이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획 대비 진척도 등을 관리하며 지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공동체가 참여 및 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완료단계에서는 사업에 대한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하고, 사업성과 및 성과확산을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어촌 6차산업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업승인 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수정을 통해 시범사업 마을이 어촌 6차산업화 사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러한 자립기반을 통해 어촌에 새로운 활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표 5-1〉 단계별 모니터링 주요내용(안)

구분	모니터링 주요내용		
계획단계	6차산업화 정책목표 일치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	지방비, 자부담 확보 여부 등
실행단계	계획적 집행을 위한 노력 여부	계획 대비 진척도 (지연 경우 대안 수립)	공동체 참여와 협력 정도
완료단계	목표달성 여부	사업성과의 정도	성과의 확산 여부

자료: 저자 작성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거제시, 『해금강마을 어촌 6차산업화 기본계획』, 2014.
- 고창군, 『고창갯벌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2009.
- 엘케이경영연구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 등 6차산업화 시범사업 성과분석』, 농촌진흥청, 2015.
- 농정연구센터, 『농식품의 6차산업화 지원사업 성과분석』, 농촌진흥청, 201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의 6차산업화 활성화방안, 2014.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제1부 수산(자료집), 2020.
- 해양수산부, 어촌6차산업화 추진방향 및 모델연구, 2015.
- 해양수산부,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민박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연구』, 2016a

〈인터넷 자료〉

- 광주일보, 「어촌·기업과 손잡고 전복·피조개 분말 첫 출시 호평」, <http://kwanju.co.kr/article.php?aid=1514214000620237243>(검색일: 2019. 11. 30)
- 경향신문, 「고흥 미역·다시마, 지리적 표시제 등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210041601291(검색일: 2019. 12. 13)
- 계도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 마을안내, <http://www.xn--989au6k99e1xng1bu8mura767c.kr/>(검색일: 2019. 12. 10)
- 네이버 블로그, 「전복빵 의외로 맛있는데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jy2229&logNo=22072304413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검색일: 2019. 11. 30)
- 대야도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 <http://www.xn--vk1boo62mmrnbiax6fm0oduan74d.kr/> (검색일: 2019. 12. 1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어촌특화상품 친환경 식품시장 첫 진출(2019. 8. 2

- 8)」,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623&pageIndex=363&repCodeType=&repCode=&startDate=2008-02-29&endDate=2019-12-10&srchWord=> (검색일: 2019. 12. 10)
- 바다여행, 「거제 계도마을」, https://www.seantour.com/upload/editUpload/20151006/20151006141424384_0.jpg (검색일: 2019. 12. 13)
- 서울신문, 「충남 가로림만 ‘감태’ 풍년, “그래도 없어서 못 팝니다”」,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7500089> (검색일: 2020. 1. 19)
- 안포 어촌6차산업화 마을 홈페이지, <http://www.ahnpo.com> (검색일: 2019. 12. 10)
- 연합뉴스, 「[소중한 어업유산]⑤ 흔적만 남은 고흥 신평마을 지주식 김」, <https://www.yna.co.kr/view/AKR20170626076000054> (검색일: 2019. 12. 13)
- 인빌쇼핑, 「명천염장우리미역」, <http://m.invil.com/mfront/gds/dtl/detailGds.do?goodsNo=8801234208321> (검색일: 2019. 12. 13)
-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jnbada.or.kr> (검색일: 2019. 12. 10)
- 전도마을 어촌 6차산업화 홈페이지, 「살거리/먹거리」<http://jeondo.kr/%ec%82%b4%ea%b1%b0%eb%a6%ac/> (검색일: 2019. 12. 10)
- 중도일보, 「전북 고창군 심원면 두어마을, 어촌 체험관광 성지로 뜬다」, <http://m.jeongdo.co.kr/view.php?key=20190731010012736> (검색일: 2019. 12. 13)
- (주)채선훈, 「멸치액젓」 1.8L, http://www.xn--s39a300cwlk.kr/kor/shop/product_view.html?pno=11 (검색일: 2019. 12. 13)
- 해남우리신문, 「또 짓고 보는가…송호 전북체험장 우려 커」, <http://www.hnwo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525> (검색일: 2019. 11. 30)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공지사항, 2018년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결과 알림」, <http://www.mof.go.kr/article/list.do?boardKey=9¤tPageNo=1&menuKey=375&recordCountPerPage=10&searchEtc1=&searchEtc2=&searchEtc3=&searchEtc4=&searchEtc5=&searchDeptNam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Select=title&searchValue=%EC%96%B4%EC%B4%8C%ED%8A%B9%ED%99%94%EC%A7%80%EC%9B%90%EC%84%BC%ED%84%B0> (검색일: 2019. 11. 30)

KBS 다큐, 「죽방림 (KBS다큐 "코리언 지오그래픽" 항공촬영 헬리캠 영상모음)」 https://www.youtube.com/watch?v=EhBKyCCQABo&feature=emb_title (검색일: 2019. 12. 13)

KNS 뉴스통신, 「고창군 십원면 두어마을, 어촌 체험관광 성지로 뜬다」,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611539> (검색일: 2019. 12. 13)

〈기타 자료〉

거제시, 「계도마을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공모계획 발표자료」, 2016.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실적 보고 내부자료」, 2019. (구득일: 2019. 12. 10).

남해군, 「전도마을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공모계획 발표자료」, 2016.

대야도 어촌계, 「사진제공」 (제공일: 2019. 11. 27).

서산시, 「중왕마을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공모계획 발표자료」, 2016.

안포어촌계, 「수산물 위판실적 내부자료」, 2018

어촌개발지원단,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실집행 현황 내부자료」, 2019a.

어촌개발지원단, 「대야도마을 사업 실집행 현황 및 관리카드」, 2019b.

어촌개발지원단, 「전도마을사업 실집행 현황 및 관리카드」, 2019c.

어촌개발지원단,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내부자료」, 2019d.

어촌개발지원단, 「어촌특화지원을 위한 현장밀착형 전담조직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방안 내부자료」, 2019e.

여수시, 「여수 어촌 6차산업 공모계획 발표자료」, 2014.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실적 보고 내부자료」, 2019. (구득일: 2019. 12. 10).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실적 보고 내부자료」, 2019. (구득일: 2019. 12. 10).

- 한국어촌어항공단, 「보도자료 “고창군 두어마을 쿠킹클래스 진행” (2016. 10. 26)」, 2016.
- 해남군, 「해남송호·중리 어촌 6차산업 공모계획 발표자료」, 2014.
- 해양수산부, 『2014년 사업지 관리(어촌 6차산업화) 사업 실적보고서』, 2015.
- 해양수산부, 「2016년 어촌6차산업화 공모계획」, 2016b.
- 해양수산부, 『2016년 사업지 관리(어촌 6차산업화) 사업실적보고서』, 2017.
- 해양수산부, 「2018년 어촌개발지원단 공고」, 2018.

〈관련 자료 목록〉

- 국가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대비 해양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최지현
02	수산부문 전망모형「KMI-FOSIM」구축 연구(2차년도)	이현동
0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어촌 구축방안 연구	박상우
04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기반구축 연구	최석우
05	연안토지의 공공적 관리 강화를 통한 연안관리 효과 제고방안	윤성순
06	선박 배출저감기술의 국내 보급·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안용성
07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연구	최일선
08	주요국의 해양유전자원 관리체계 강화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박수진
09	하천·해양 수질의 연계·통합 관리 체계 연구	장원근
10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연구	이정삼
11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평가 및 보존에 관한 연구	류정곤
12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사회적책임 실천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정명화
13	수산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과 노동정책 영향분석 연구	한광석
14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 개선 방안 연구	김태일
15	국내외 해운금융 비교를 통한 국내 해운금융 역량강화 방안 연구	전형진
16	해상 사이버 보안 대책방안 연구	박한선
17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해운기업 역량강화방안 연구	윤희성
18	국내 항만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산항 및 주요항만을 중심으로	하태영
19	동북아 공동배출규제해역 지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연구	이기열
20	수출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협력 수준 분석과 물류정책 개선방안 연구	김은수
21	온도조절 컨테이너의 국제물류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신수용
22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글로벌 지속발전방안 연구(3/3)	박한선
23	환동해권 경제개발 및 협력방안 연구(3/5)	최나영환

2018년

01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박수진
02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한 연구	윤성순
03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홍장원
04	양식장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방안 연구	김경신
05	수산부문 전망모형 「KMI-FOSiM」 구축 연구(1/2) - 양식산업 전망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동
06	수산업 주요 연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연구	임경희
07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박상우
08	양식어장 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마창모
09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어업의 허가제도 개선 방안	엄선희
10	과학적해양사고조사체계도입 및 구축기반 연구	박한선
11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예측 모형 연구 - 베이지안 방법론을 중심으로	고병욱
12	해운기업 지배구조 및 비즈니스 유형과 경영성과 관계 분석	황진희
13	건설용 모래 공급사슬관리(SCM) 방안 - 바다모래 가치 재산정을 중심으로	이연경
14	항만산업 종합통계 연구	하태영
15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방안 연구	최나영환
16	국내 컨테이너항만의 비용함수 추정과 효율성 연구	최석우
17	환동해권 국내기업 진출사례 분석 및 개발 추진전략- 극동 러시아 지역 사례 중심으로-	이기열
18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지속발전방안 연구 -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2차년도) -	박한선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일본의 수산물 수입 구조 분석과 對일본 수출 전략 연구	임경희
02	수산물 위생안전을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장홍석
03	사업체 총조사 MD를 활용한 2016,2017 어촌지역 고용통계	한광석
04	외래 해양부착생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박수진

2018년

01	선화주조선 상생발전을 위한 해운산업투자 확대방안 연구	윤재웅
02	낙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이정삼
03	국내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안용성
04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 개선을 통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FTZ) 활성화 방안	조지성
05	최저임금 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기열
06	수산업·어촌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류정곤
07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연구 방안	염선희
08	유엔 BBNJ 신 공해질서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박수진

현안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연구	최일선
02	고등어류 수급통계 개선방안	이남수
03	해수욕장의 사회학자 포용성 증진 방안	정지호
04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황규환
05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연계·활용방안 연구	안용성
06	한국산 수산물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연구	한기욱
07	해양 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력 방안 구상	이윤정
08	USMCA 수산분야 협정문 분석 및 시사점	안지은
09	해운 조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	안영균
10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체계 구축	박상우
11	지역 해양수산 역량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황재희
12	극동러 진출 우리 화주·물류 기업의 물류 애로사항 분석 및 개선 방안	박성준
13	수산물 원산지 거래증빙자료의 비차보관 의무 도입방안 연구	임병호
14	차세대 수산물 수출 전략 품목 발굴 연구	이상건
15	부산항 타부두 환적화물 수송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박주동
16	한국형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심기섭

2018년

01	미얀마 국립수산대학 설립 추진 방안	정명화
02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김태일
03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ASC 인증을 중심으로-	이상철
0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인력양성 방안 연구- 국제물류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	박광서
05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 계약 개선방안 연구	윤재웅
06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김은수
07	자율운항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박혜리
08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윤성순
09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연구	최일선
10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영석
11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정보 생산·활용방안	정지호
12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하태영
13	해양바이오 산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한기원
14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장정인
15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이정삼
16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항만물류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이기열
17	한국 제조기업의 SCM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수용
18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연구 -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병욱
19	신남방정책 이행 위한 우리나라-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정명화
20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	최지연
21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발굴과 추진방향	최지연
22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문석란
23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연구	박상우
24	페루 수산업 실태 및 수산 협력 방향	엄선희
25	경제 총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이용한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	한광석
26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남정호
27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도입방안	홍장원
28	어촌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박상우

29	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항만 및 배후단지 활용방안 연구	이종필
30	IMO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대비한 국내 해운산업 대응 전략	이호춘
31	외래병해충에 대한 항만분야 방제체계 개선방안	최나영환
32	수산물 생산·유통분야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가능성과 도입방안	고동훈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양식수산물의 경영비 조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백은영
02	딥러닝 기반의 건축물선 사항예측 연구	윤희성
03	해운-조선산업 관계분석 연구 - 컨테이너 신조발주량 예측 -	최건우
04	디지털 공급사슬 물류정보통합 구축전략 연구(Ⅰ) -디지털 공급사슬 생태계 정보통합지도 구축 중심-	최상희
05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해안관리 방향	정지호
06	우리나라 주요 국제여객항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운영, 시설, 제도를 중심으로	이경한
07	북한 서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8	EU의 수산물 소비 특성 및 수출 전략(프랑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김지연
09	해양수산 위성계정 기초연구(Ⅰ)	장정인
10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의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활용방안 연구	김형근
11	지역 해양수산 혁신성장체계 구축 연구	최지연
12	도미니카공화국 뱀장어 양식사업 타당성 조사	마창모
13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2차년도) -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과 신활력 사업구상 -	박상우

2018년

01	전라남도 작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	김근섭
02	2019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03	러시아 Arctic LNG-2 사업 참여 방안 연구	김민수
04	물류기술 R&D 추진성과 분석 연구	강무홍

05	우리나라 기업의 일대일로 물류분야 협력방안 연구	김형근
06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7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연구	김민수
08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육성 방안	이상철
09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해운협력 기반 구축 방안	황진희
10	영토 권원 이론의 현대적 발전과 한계	김원희
11	동해표기 문제 연구	현대송
12	우리나라 기업의 창장물류 활용방안 연구	김형근
13	태국의 수산물 소비트렌드 분석 및 수출 전략연구	임경희
14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제도 개선 연구	육근형
15	해양수산 분야 9브릿지 구축방안 연구	박성준
16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박상우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인 쇄 | 2020년 06월 28일 인쇄

발 행 | 2020년 06월 30일 발행

발 행 인 | 장 영 태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 캡스앤디 컴퍼니 (051-911-9890)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정가 6,000원